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다면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20일)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토끼의 지혜로 위기 넘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불기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시무식 이후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글 · 사진=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2면〉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 추진 본격화

미래본, 오는 1월 11일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

주요 스님, 재가자 등 108명 참여
준비위 발족 후 열암곡 마애불서
도감 스님 중심으로 매일 기도회
4월 발족 예정 추진위 동력 '결집'
마애불 입불 · 명상센터 건립 등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 추진 기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명상센터 건립 등 조계종 37대 집행부 주요 핵심 불사의 추진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의 핵심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추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1월 11일 오후4시 서울 부암동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년을 세우다'는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의미한다. 이 불사에는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안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문화재청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3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불자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불교의 성지인 경주 남산을 알려 나가려고 한다"면서 "사찰(단체) 등 불자들을 중심으로 순례기도를 대중화시켜 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말한다. 지안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도심과 경주 남산에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 등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마애불 입불과 명상센터 건립 불사의 범불교적 원력과 동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준비위 자문위원으로는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직지사 회주 법등 스님,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이 위촉되며, 준비위원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교구본사 주지, 주요 신도단체장, 문화재 전문가, 불자대상 수상자 등 108명이 참여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장은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과 문화부장 탄원 스님이, 미래추진단장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명상센터 건립), 상도선원 회주 미산 스님(명상센터 프로그램 자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지역불교 활성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미래세대 인재 양성)이 각각 위촉될 예정이다.

발족식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동력 결집에 들어간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발족식 다음날인 1월 12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매일 기도회가 진행된다. 기도는 도감 본오 스님을 중심으로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범어사, 통도사 스님 1명이 기도법사로 참여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순례기도 프로그램 개발, 모연방법 등 대중사업 내용 준비, 사회 각계인사 추진위원 섭외 등도 이뤄진다. 미래본부는 이 같은 동력 결집을 통해 오는 4월 중순경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는 단순히 문화재급 마애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불사이며,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보살행이며, 불교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불사"라며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원만회향돼 중생구제 · 민족통일의 비원이 실현돼야 한다. 추진준비위 발족은 이 장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20대 총장 윤재웅 학장 선임

"건학이념 구현 위한 핵심가치 정립"

1월 5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종립대학 건학교육 강화 공약
불교교육학 이론 정립도 제시



동국대 제20대 총장에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성우)는 1월 5일 교내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74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제20대 총장 선임 안건을 논의 ·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인 윤성이 총장,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 임중연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만장일치로 윤재웅 학장을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 윤재웅 차기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윤 차기 총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동국대를 법신불(法身佛)로 여기고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기 총장은 "동국대 정각원 주련에 '동국 상방 대광명'이라는 경구가 있다. 부처님께서 정각의 순간 상방 대광명을 이루셨다"며 "'동국대를 법신불로 보고 학교를 상방 대광명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차기 총장은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문학으로 석 ·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사범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동국대 전략홍보실장, 사범대 · 교육대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건학이념 교육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을 비전으로 국내 5위, 글로벌 100위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 차기 총장의 목표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 일상화 △명상교육 표준화 및 융합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대장경 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재웅 총장 당선자는 "불교교학과 현대교육학을 결합한 '불교교육학' 교육이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키려 한다"면서 "남산 걷기명상(行禪) 프로그램과 합장 · 공양기도 등을 일상화해 불교종립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BMC캠퍼스 시설을 개선하고 현 테니스장 부지에 기숙사 신축과 혜화문 일대 로터스관 착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구조혁신과 인수합병을 통해 학교 재정규모를 4000억 원대로 확장하고, 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주도 및 확산과 미래 인재 양성 교육체계 수립, BMC 평화연구 클러스터 구축 확산 등 정부과제 사업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동문 및 범불교계 기금 모연을 위한 홍보문화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부총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차기 총장은 "동국대는 붓다의 지상명령으로 설립된 학교로, 붓다의 실천적 삶을 이 땅에 구현하려는 실천도량이다. 이것이 동국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의 핵심"이라면서 "불교교육학의 체계를 세우고, 현재 · 미래교육과 어떻게 상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동국교육의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화된 교육 · 경영이론을 뒤따라가면 구성원들은 기계부품처럼 마모된다. 동국대는 기능주의적 프레임에 벗어나 '마음의 향상'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22년 회계연도 법인 중간감사 보고 및 법인 인사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의결안건으로는 교원인사,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의 승인, 의료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 승인, 법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새 총장 선출 등 학교가 새롭게 구성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해 한 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이사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발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3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 및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13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3월 3일(금)

제6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 2월 24일(금)

제6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 2월 17일(금)

제7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 3월 17일(금)

학생 모집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2023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일 ~ 3월 7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3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일~ 3월 14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강의 영상 제공함.

상세 공모 내용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진우 스님 "마애불 입불, 새천년 세우는 불사"

1월 2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 산하기관 시무식서

'교삼토굴' 상기…위기 대응 강조

출 · 재가 종무원 300여 명 참석

천태종 등 주요 종단 시무식 개최

전국비구니회 4일 신년하례 열어

신성민 · 임은호 기자

"제37대 조계종 집행부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시작은 천년동안 쓰러져 계신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계묘년 새해 첫 일성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 였다. 천년을 쓰러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과거 천년을 되짚고, 새로운 천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불기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 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2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일반직 종무원 대표자들이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불사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지난 천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일"이라며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 모두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일에 진심과 신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면서 맡은 임무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전쟁과 출가자 감소 등 불교 안팎의 위기 상황을 거론한 진우 스님은 '교토삼굴' 의 지혜를 당부했다. '교토삼굴' 은 '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판다' 는 의미로 '위기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라' 는 당부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시대적 상황과 주어진 여건이 녹녹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토끼처럼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새해에도 부처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원력과 신심, 공심으로 맡은 바 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종단과 불교단체들도 일제히 시무식과 신년하례를 열고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은 1월 3일 단양 구인사 법희원에서 총무원장 무원 스님, 총무원 각 부서장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 일반직 종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시무식' 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듯, 계묘년에도 자신과 종단 그리고 불교계와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종단의 행정이 반듯하면 종도들의 신행도 반듯해지고, 모든 불사와 기도 수행정진이 반듯해진다"고 강조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 정사)은 1월 5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다목적홀에서 진기 77(2023)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인 경정 정사는 신년법어를 통해 "종교가 근본이 되어 진실로 참회하면 쟁론의 정치도 남 탓의 세파(世波)까지 인과를 밝게 찾아 시비를 함께 가리고 책임지고 용서하는 사회가 자리한다"며 "올해도 내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간 작년이 되도록 뜻 모아서 살맛이 벅찬 나날을 나누어 보자"고 설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월 4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2023년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는 올해 6월 개최될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언급했다. 스님은 "각종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면서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한국비구니도 세계에 알리고, 세계불교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심단결로 비구니 승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며 "대회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재능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회장 소임 4년차를 맞은 본각 스님은 법회에서 회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3년 간 집행부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그간의 성과들을 설명한 스님은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려 한다"면서 "다음 회장 스님을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10여 개월 동안 12대 소임자들 모두가 노력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임원 스님들은 같은 날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새해덕담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1월 중으로 마무리 될 요양병원 인수를 언급하며 "불교 호스피스 분야에서 불교 역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비구니스님들의 전문지식이 활발히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지도자 스님들을 양성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이 전문 지식이 불교계 요양병원에서 활용, 불교를 넘어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진우 스님 "불교 근본 잊지 않겠다"

1월 5일 조계사서 108배 정진

교역직 스님, 조계사 신도 동참

1차 회향… "개인적으로 계속"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2022년 9월 28일 임기를 시작한 진우 스님의 첫 행보는 108배였고, 이후 매일 아침 6시 50분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개인적 원력으로 시작했기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나 재가 종무원들이 부담될까 알리지 않고 108배를 시작했지만, 이내 동참자들도 생겨났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아침도 강화 보문사 마애불 앞에서 108배 정진을 하며 맞았다.

취임 100일을 맞은 1월 5일도 진우 스님의 108배 정진은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오전 7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전에 108배를 올렸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장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 조계사 신도도 정진에 동참했다. 죽비에 맞춰 시작된 108배 정진은 20여분 가량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5일 조계사에서 108정진을 진행했다. 스님은 100일째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에게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총무국장 향림 스님, 조계사 지장법회 회원들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100일 1차 회향을 축하했다. 지장법회 회원들은 축하 케이크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108배를 하게 된 이유와 불교와 종단이 나아갈 길을 되새겼다. 스님은 "절집에 들어온지 50년이 넘었고, 30년 이상을 스님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초발심의 순간들을 잊고 타성에 젖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초발심을 상기하고자 시작한 것이 108배"라며 " '종단의 행정수반으로서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 스님들의 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해달라' 는 염원을 108배에 담았다"고 밝혔다.

"불교의 목적은 성불(成佛)"이라고 말한 진우 스님은 "왜 번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번뇌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전법 포교"라며 "이 같은 근본에 대한 지향점을 종단 종책에 담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자의 증감, 일의 성패에만 집착해서는 근본을 잊게 된다. 저 자신도 이를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 사부대중 여러분도 이를 잊지 않고 살아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오늘로 1차 회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8배 정진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의 108배 100일 정진을 함께 한 사부대중은 희망의 원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종단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솔선수선해서 매일 108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며 많이 감화됐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오늘은 100일로 회향하지만 다시 100일이 되고, 4년이 돼 37대 집행부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명상센터 건립"

진우 스님, 1월 4일 임명장 수여

종단 역점 종책 불사 동참 약속

조계종 제8교구본사 주지에 장명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직지사 주지로 임명된 장명 스님은 중앙종회의원부터 직할사찰 주지 소임까지 종무행정과 포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해 교구본사를 이끌어가는 데 모자람이 전혀 없다"면서 "직지사는 경북의 주요한 교구본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중 스님들과 함께 직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하며 하신 말씀과 원력들이 그동안 사찰 주지 등 소임을 보며 가진 생각과 같다"면서 "우선 직지사 경내에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종단 추진 종책 불사와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4일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명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8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제14 · 15 · 16 · 17대 중앙종회의원과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 배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태 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전세계 '붓다의 딸들' 6월 한국에 모인다

세계 여성불자모임 샤카디타, 18차 대회 한국서 개최

6월 23~27일, 코엑스·봉은사 일대
'위기의 세상 속 깨어있기' 주제로
전 세계 40개국서 참여할 것 예상
28~30일 월정사·백담사 등 순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 세계 여성수행자들의 대화합 장이 될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전국비구니회관 등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 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04년 열렸던 8차 대회에 이어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세계의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해야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월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개막식 후 5일간 행사에는 다채로운 일정들이 준비됐다. 총 6개 주제의 논문발표와 62개 워크숍, 포스터 발표, 세계의 명상, 저녁예불, 저녁법문, 문화공연, 전시 등이 이어진다.

6개 주제는 △한국의 불교여성 △깨달음의 추구:비구니 수계의 현황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상성 △순례, 수행,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난 여성들이다.

논문발표와 워크숍, 각종 문화공연은 코엑스에서, 아침명상과 공양은 봉은사에서 이뤄진다. 특히 전국의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봉은사에 모여 참가자들을 위한 공양을 준비, 뛰어난 한국의 사찰음식을 전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매일 공식 일정 후에는 연등행렬과 법문, 서울야경 투어 등을 진행, 불교를 넘어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전세계 수행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6월 27일 오후 5시 진행되는 폐막식 후에는 사찰순례도 이어진다. 6월 28~30일 오대산 월정사와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를 순례한다. 순례 기간 동안 사찰참배와 함께 자연 속에서 마음 고르기, 세계 평화와 환경에 대한 염원을 담은 숲 건강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40여개국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장 본각 스님은 "최근 우리는 우리가 발전시켜온 문명과 작금의 세계정세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뼈아프게 실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하고,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이 두루 참석해 함께 성장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등록은 홈페이지(http://sakyadhita2023.kr)에서 가능하다. 4월 23일까지 사전등록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접수할 수 있다. 등록비에는 5일간 대회 입장권, 사찰식 아침·점심공양, 오전·오후 다과, 환영연, 대회 자료집,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한편 '붓다들의 딸' 이라는 뜻을 가진 샤카디타는 1987년 설립됐다. 세계 여성불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국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 한 세계평화구축과 인류 이익을 위한 자비로운 사회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대만, 네팔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2013년 7월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과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세계여성불자들과 교류하고 여성불자들의 국제적 리더십 역량을 증진하며 양성평등한 불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대회 참석, G.E.P.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샤카디타 포럼 등의 활동을 한다.

공수처장 시무식서 찬송가…불교계 '공분'

시무식서 본회퍼 목사 시 소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송가 불러
"타종교인 불편해" 내부 의견도
종교편향특위, 종평위 "퇴진하라"
김진욱 "불교계 심려끼쳐 죄송"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1월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불교계는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실한 개신교인인 김진욱 처장은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故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 를 소개한 뒤, 이 시를 기반으로 한 찬송가 '주 선한 능력으로' 를 불렀다. 김 처장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꺽꺽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공수처 구성원 대부분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고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보기엔 부담스럽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알려졌다.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행위에 대해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처장이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데, 구성원들에게 단합된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 울컥한 것 같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김 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소식에 불교계는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특정종교의 신앙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공공기관 시무식에서 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 종교 편향적 행위를 한다면 그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처장의 시무식 찬송가 사안은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는 1월 16일에 열리는 종교편향특위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도 1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성명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도 종교편훼, 편향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분노에 김 처장은 1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신년사 말미에 본회퍼의 시 첫 소절을 인용·소개한 뒤 해당 시를 가사로 하여 작곡된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른 바 있다"면서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만,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의 언행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저는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한 치의 치우침 없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 장학금 3억 원 희사

1월 4일 교내 정각원서 전달
학내 구성원 '동국중흥' 다짐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사진 왼쪽)이 1월 3일 열린 동국대 신년하례에서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건학장학금 3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등록금·취업 걱정없는 동국대를 기원하며 장학금 3억 원을 희사했다.

자승 스님은 1월 3일 교내 정각원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건학장학금 3억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2023년 계묘년 첫 장학금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자승 스님은 2021년 4월 29일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취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1년 만에 약 14억 원의 정제를 동국대에 희사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전액장학금 사업이 본격화되며, 많은 동참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을 비롯해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정충래·이은기·민병덕 이사, 감사 원명 스님, 총장 직무대행 종호 스님, 이영경 WISE캠퍼스 총장,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진명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등 학내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내 사부대중은 신년하례를 하며 동국대 중흥을 기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사노위, 노조법 요구 2600배 동참

1월 3일, 여의도 국회앞서 촉구
동신·현성 스님 등 26명 동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2600배를 하며 노조법 재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월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진행된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 에는 원청의 책임 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와 청소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학습지·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 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동참했다. 이날 동참자 26명은 100배씩 모두 2600배를 하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외쳤다. '26' 이란 숫자는 노조법 개정 뒤 흐른 26년을 뜻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안전망도 없이 위험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가족들의 생계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은호 기자

2023년 정월·음력 2월 윤달

1월 22일 ~ 2월 19일 · 3월 22일~4월 19일

해인사 성지순례

불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인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인사는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불교의 삼보(三寶)라고 일컫는 佛(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
法(팔만대장경), 僧(희랑대사상)을 국보로 보유한 최초의 사찰입니다.
해인사에서 국보로 나투신 삼보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복되고 희망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순례 특전 (단체)신청시–일주문에서 장경판전까지 내부관람 (스님의 안내 설명. 공양 제공) ※ 사전 단체접수에 한함


佛 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국보)


法 팔만대장경(국보)


僧 희랑대사상(국보)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 (055)934-3000 Fax 934-3010

전국 사찰 설 합동차례…"부처님 공덕으로 가족 행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접수 인원 매년 늘어남에 따라
도선사, 하루 4차례 나눠 진행
조계사, 시주금 선원에 회향도
"부처님 전에 소망 기원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떡국을 나눠먹는 설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차례에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를 휴가처럼 즐기려는 인구가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합동 차례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사찰들은 설날인 1월 22일,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서울 조계사는 1월 22일 오전 8시와 11시, 오후 1시 세차례에 걸쳐 여법한 예법에 따라 설 합동 다례재를 준비하고 있다. 다례재에 올라온 공양물과 시주금은 동안거 선원 대중공양금으로 사용되기에 더욱 뜻 깊다. 조계사 측은 "스님들이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도들의 수희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02)768-8500

지난 1월 1일, 신정합동차례를 지낸 **봉은사**는 설 합동차례와 단독차례를 준비했다. 합동차례는 1월 22일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 법왕루에서 봉행된다. 단독차례는 같은 날 대웅전을 비롯해 지장전과 영각, 선불당, 미륵전, 보우당, 판전, 영상전 등에서 진행된다.

봉은사 측은 "불교식 제례로 선망부모를 위한 차례와 함께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고 새해 첫날에 온가족이 부처님 전에 모여 계묘년 한 해 소망을 기원하는 귀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218-4804

삼각산 도선사는 1월 22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계묘년 설날 합동 다례를 봉행한다. 접수 인원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오전 7시와 9시, 11시, 오후 1시 등 총 4차로 나눠 진행된다. 02)993-3161

제19교구본사 **화엄사**를 비롯한 전국 교구본사들 또한 1월 22일 합동차례를 준비하고 있다. 화엄사는 설 당일 오전 10시 각황전에서 설 차례 및 영구위패합동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061)782-0011

제7교구 덕숭총림 **수덕사**도 당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 설날합동다례를 진행한다. 떡과 과일, 공양화, 공양금은 성심껏 받는다. 041)330-7700

제22교구 두륜산 **대흥사**도 1월 22일 설날 합동차례를 열고 신도들의 가정에 재난이 소멸하고 복락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발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061)534-5502

서울 불광사는 오전 10시 보광당에서 '계묘년 2023 설날합동차례'를 지낸다. 불광사 측은 "선망조상들을 위한 차례를 올리고 공덕을 기리고자 한다"면서 "새해 첫날 온가족이 부처님 전에 모여 계묘년 한 해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413-6060


조계사에서 진행된 합동 차례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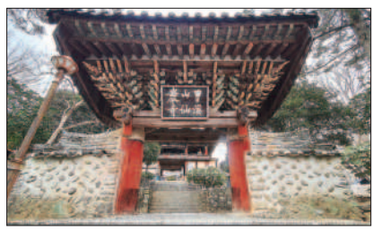
사찰 차례는 번거로운 상차림을 피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예를 갖추고 특히 코로나 일상에서 명절 문화의 바람직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사찰 차례상은 일반 차례상과 다르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정법에 맞는 불교식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지침서 '불교 상제례 안내'를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불교식 차례는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가르침에 따라 고기나 생선은 상에 올리지 않고 술 대신 차를 올린다.

육법공양물인 향 · 초 · 꽃 · 차 · 과실 · 밥을 올리며 기본 상차림으로 국과 3색 나물, 3색 과실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나물과 과실은 계절에 적합한 것을 올리고 형편에 따라 떡과 전 · 과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집안 전통에 따라 융통성 있게 차려도 무방하다.

전국 사찰 일주문들 보물 지정

문화재청, 선암사 · 봉암사 등 일주문 4건 공고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

사찰 일주문은 사찰이 시작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정문으로 기둥이 일렬로 배치된 독특한 형식의 문이다. 사찰 4곳에 일주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사찰 일주문 4건, 사찰 문루와 불전, 누정건축, 승탑 등 각 1건이다. 사찰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예고된 것은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전국 50여 사찰의 일주문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곳의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된 사찰 일주문은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이다.

'순천 선암사 일주문'은 조계문(曹溪門)으로도 불리며 1540년 중창됐다. 선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다포식 공포로 돼있으며, 기둥 구조는 기둥과 창방(기둥 상부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 부재)으로 단순하게 구성됐다. 선암사 일주문의 초창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중창 이후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 때 유일하게 소실을 면한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문경 봉암사 봉황문'은 172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문 앞쪽에는 '희양산봉암사(曦陽山鳳巖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뒤쪽에는 '봉황문(鳳凰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봉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다포식 공포로 돼있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은 1633년(선조 11년)에 처음 건립됐고, 1965년에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동화사 봉황문의 구조는 주기둥 상부에 비스듬히 부재를 덧댄 형태와 주기둥 옆에 2개의 보조기둥을 세운 형태가 혼합된 형식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다.

'구례 천은사 일주문'은 1723년에 창건됐으며 앞쪽에는 원교 이광사(1705~1775)가 쓴 '지리산천은사(智異山泉隱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원교 이광사가 흐르는 물과 같은 글씨체(水體)로 이 편액을 써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통 일주문은 문지방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석재로 된 문지방석이 주기둥 사이에 있는 사례는 천은사 일주문이 유일하다.

사찰 문루인 '고성 옥천사 자방루'도 보물로 지정됐다. 상량문 등 기록에 따르면 1664년에 법당 맞은편에 위치한 정문(正門)으로 처음 건립됐고, 1764년에 누각형태로 중창돼 '정루(正樓)' 또는 '채방루(採芳樓)'라 지칭했다.

이와 함께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과 신라 말기 승탑인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적극 조사 ·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주당 문화특위 · 인도대사, 진우 스님 예방

1월 3일, 신년 맞아 예방 잇따라

새해를 맞아 사회 각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덕담을 나눴다.

진우 스님이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식기구인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의 예방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올해 정부 예산에 불교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언급하고 전통사찰 확대 적용으로의 바람도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종단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받들어 국회 정각회와 함께 더욱 심기일전 해 올해 더욱 전통문화 발전에 힘쓰겠다"면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일 많은 만큼, 종단에서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같은날 진우 스님을 예방한 아밋 쿠마르 대사는 2월 9일부터 43일간 진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사는 "불교 탄생지인 인도와 한국의 수교 50주년을 맞은 해에 진행되는 순례인만큼 원만회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우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는 우리 불교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수교 50주년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수교 2000년이 넘은 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새해를 맞아 민주당 문화특위(왼쪽)와 주한 인도대사(오른쪽)가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齋(재) 의식의 변화 輦(연) 소형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가볍습니다 4kg
금단청연
적단청연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포교당 사용
대형 연
영단의 장엄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공단자수 (번)幡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현장영상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이태원 참사 49일째 '추모 위령제'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010-8441-6814



템플스테이로 조금 특별한 설날 맞아볼까

2023년 새해, 특색있는 템플스테이 12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 시작됐지만, 몸과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된다면 고즈넉한 겨울 산사로 떠나보자. 차분하게 내려앉은 듯한 겨울 산사의 정취는 저절로 스스로를 반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설날을 전후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올해 한해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특색있는 설맞이 템플스테이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서울·경기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종로 조계사**는 '경복궁 책방길'과 연계한 1박 2일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운영 중이다. '경복궁 책방길'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 건너 서촌길에 작은 책방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명칭이다.

1월 13일~14일 진행되는 경복궁 책방길 템플스테이는 지정된 책방에서 책을 구입해 사찰로 돌아와 큰방에서 함께 독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좋은 구절은 표시했다가 참가자 모두에게 들려주는 낭독의 시간도 갖는다. 겨울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책방은 '건강책방'이다. 도서 구입비는 별도로 1~2만원 정도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02)768-8660

경기 남양주 묘적사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휴식형 2박3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명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쉼을 원한다면 추천한다. 사찰예절과 예불, 공양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님과 차담, 108소원염주 꿰기, 계곡물소리 들으며 걷기 명상, 좌선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1인 참가자를 위해 1인실 배정이 가능한 점도 눈길을 끈다. (031)577-1762

설 명절 이후 영화를 보고 명상하며 스스로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 남양주 봉인사**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힐링 명상 템플스테이'는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서 이 세상이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프로그램이다.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일정으로 매트릭스 명상과 죽음명상을 비롯해 경치 좋은 코스 걷기 명상, 지금 이 순간 마음바라보기 명상, 나 사랑하기 명상 등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031)528-5585

경기 광명 금강정사는 2월 1일까지 '2023 새해, 나를 깨운다'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조계사-경복궁 책방 연계 프로그램
마곡사 등 설맞이 템플스테이 운영
보인사, 영화 메트릭스 보고 명상도

새로운 한 해를 위해 차분히 계획하고 정리하며, 내 속의 숨어있는 재능과 용기를 깨우기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로 '새해행원 발원하기'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898-8200

충청·강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3 설날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곡사에서 고요히 자신과 마주해보고 싶다면 마곡사로 떠나보자.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시간 운영이 특징이지만 둘째 날에는 윷놀이와 스님과의 차담도 준비돼 있다. (010)7110-6226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은 '우리끼리 명절스테이'를 연다. 1박 2일(1월 21~22일, 1월 22~23일)과 2박 3일(1월 21~23일)로 나눠 운영되며 만두빚기, 불멍, 윷놀이, 기와불사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041)841-9039

강원도의 청정 자연 속에서 설을 보내고 싶다면 **인제 백담사**의 '우리설 희망 템플스테이'는 어떨까.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동안 열리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새해 차례와 자비명상, 숲 포행, 차담 등이 진행된다. 강원도인 만큼 눈이 많아 포행시 아이젠을 준비해가면 좋다. (033)462-5565

전남·전북

불교식으로 새해를 보내보고 싶다면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를 추천한다. 1월 21~23일 2박 3일 간 열리는 '새해맞이 떡국먹고 세배하고' 템플스테이에서는 새해 첫날 스님들께 불교의식으로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약사암 산행, 타종체험, 스님과의 차담도 진행된다. (061)392-0434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도솔암 포행 및 천마봉 등산, 스님과의 차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010)5231-1375

경남·경북

템플스테이도 하고 싶고, 설 차례도 해야 한다면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로 가보자. 쌍계사는 1월 21~23일 2박 3일간 '설 합동차례 템플스테이'를 연다. 설날 대웅전에서 불교전통 세배를 스님과 함께 하고, 합동 차례도 올리며, 사찰 설 명절음식도 맛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휴식시간에는 윷놀이도 할 수 있는데 잘 하면 경품도 준다는 후문이다. (010)6399-1901

부산 선암사에서는 1월 21일까지 '새해맞이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예불과 공양시간을 지키고 경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시간이 보장된다. 108배와 명상, 연꽃등과 단주만들기 체험도 이뤄진다. (051)805-7573

한국불교 전통무술 선무도의 본산인 **경주 골굴사**에서도 설날 템플스테이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3박 4일이 기본인 프로그램이지만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1~3박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선무도 수련과 국궁 체험(1만원 추가)을 비롯해 만두 빚기, 108배, 좌선, 민속놀이가 진행되며 설날 당일에는 합동차례도 열린다. (054)775-1689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정보와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s://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代' 이은 연등 제작
승강장치 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찬덕불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공장 직영 생산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보장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031)768-7270, 7271

종립 금정중학교 제46회 수계법회 봉행

학생 · 교사 · 학부모 등 123명 수계
1975년 10월 첫 수계법회 봉행
누적 학생 수계자 총 1만3274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중학교가 구랍 12월 28일 교내 도서관에서 제46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교장 박명규)가 구랍 28일 교내 도서관에서 제46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정중학교는 매년 수계식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을 서원하고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학생 109명과 학부모 12명, 교직원 2명 등 총 123명이 동참했다.

수계식은 이석언 교법사의 집전과 법해사 주지 탄준 스님의 인례로 진행됐으며 삼귀의와 오계에 대한 설명, 참회 순으로 이어졌다. 수계대중은 연비와 관정의식을 마지막으로 수계의식을 마쳤다.

이날 전계사를 담당한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은 격려사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변하는 성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성을 의지해 살아야한다"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불자답게 살아가고 계를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규 교장은 인사말에서 "불자로서 올바른 삶의 가치 기준인 계율이 필요하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간다. 계율은 난폭한 짐승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며 "계는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오늘 계를 받는 여러분들은 계사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모두가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언 교법사는 "이번 해는 수계인원이 많았다. 학교 법당인 반야원에서 향을 이운해 도서관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오늘 수계식을 통해 금정중학교 3학년은 대부분 수계를 받게 되었고 교직원 전체가 수계로 불제자가 되었다.

앞으로도 수계식을 진행하고 참된 불자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계자를 대표해 김민승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면 3년 동안 법당을 찾아 아침 예불을 올렸던 기억이 난다. 법당을 정리정돈하고 관리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마음을 정돈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스스로 돌아봤을 때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학업 성적도 많이 올라갔다.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계식을 계기로 불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정중학교는 1975년 10월 광덕 스님을 계사로 제1회 수계식을 봉행했다. 당시에는 학생 235명과 교직원 9명이 오계를 수지했으며 이후 매년 10월과 11월에 수계식을 이어왔다.

이번 수계식으로 금정중학교의 3학년 재학생 121명 가운데 91%가 계를 받았으며, 현재 교직원은 전원이 오계를 받았다. 금정중학교 총 수계자 인원은 학생 1만3274명, 교직원 158명, 학부모가 269명이다.

사회복지법인 범어, 지역아동센터 4곳 후원 약정

3년간 각 1080만원 후원약정
"아동과 청소년 한국의 미래"
계묘년 새해 맞이 타종식도



사회복지법인 범어(대표이사 보운, 이하 범어)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한 아동 청소년 후원에 앞장선다.

범어는 구랍 27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후원 약정식을 개최했다. 후원 약정식에서는 주지 보운 스님이 4곳의 지역아동센터장들에게 약정서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통해 인사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범어는 3년 동안 금샘마을지역아동센터, 부곡지역아동센터, 글누리지역아동센터, 서동지역아동센터에 108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보운 스님은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 한국의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아동센터의 복지와 환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후원 약정을 하게 되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어사는 구랍 31일 경내에서 불기 2567년 계묘년 새해맞이 타종식을 개최했다. 주지 보운 스님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을 비롯한 대중들은 구랍 31일 밤 11시 30분부터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 새해 소망을 기원했으며, 인사말 및 축사 등을 통해 덕담을 나누었다. 새해가 시작되는 자정에 맞춰 타종이 시작됐으며, 참여 대중들은 환호하며 힘찬 새해를 기원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면 평화롭게 살아간다"며 "오늘 웅장하게 울리는 타종 소리를 듣고 마음의 광명을 마주하는 울림이 되고 소리의 여운은 행복한 나를 찾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마음치유여행 프로젝트 연장

순례치유 템플스테이 2월까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마음치유여행 프로젝트 〈쉼, 그리고 어루만짐〉' 이 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통도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템플스테이 '마음치유여행 프로젝트 〈쉼, 그리고 어루만짐〉' 를 진행해 왔다. 프로그램은 무풍한송로 및 산내 암자 순례와 차밭 명상, 오감치유 명상 등이다.

템플스테이 참가대상자는 전역자, 대학휴학생, 육아휴직자, 퇴직자, 코로나 의료진, 다문화가족(아동 포함), 봉사단체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1박 2일(목, 금)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약은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락서암, 제4회 락서암장학금 전달식 개최

장학금 총 1000만 원 전달



부산 락서암이 구랍 27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제4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청소년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락서암(주지 수월)이 구랍 27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제4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락서암은 대학생 6명에게 각 100만 원, 고등학생 6명에게 각 50만 원, 중학생 4명에게 각 30만 원,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월 스님, 진파 스님(법화종 원로), 성문 스님(前 사상구연합회회장), 성림 스님(신임사상구연합회회장), 법경 스님(前 사상구연합회 총무) 그리고 장학금 수여 학생들이 함께 했다.

수월 스님은 "육바라밀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게 인욕바라밀이다. 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돈 쓰고 싶고, 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그 순간만 참고 견디면 이루고자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며 "놀고 싶은 마음 참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힘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보배가 되시라"고 인사를 전했다.

진파 스님은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계신 수월 스님은 복을 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라며 "이렇게 복 짓게 해준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훌륭한 인재기 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법문했다.

성문 스님은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닦아 세계 최고가 되라"고 격려했으며, 성림 스님은 "장학금은 많은 이들의 공덕이 모여 회향하게 된 것이니 알차게 인생을 설계해 가라"고 격려했다.

한편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은 수월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락서암은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알림〉
1418호 사진 게재 오류로 바로잡아 게재함.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사업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시스템
5년간 아동 5665명 대상 조사
2차 장애 예방 통해 성장 지원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사업 행복자람터 진행으로 어린이 장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부터 부산광역시 · 부산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보급사업에 선정돼 남구 · 수영구 소재 유아교육기관 학급관찰(놀이관찰)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사업을 펼치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 5년간 아동 5665명을 대상으로 학급관찰조사를 실시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선별하고 2차 장애예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다. 아울러 주양육자의 양육코칭 · 심리상담, 보육교사의 역량강화교육 · 1:1 실무자 코칭 지원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기개입사업은 단순 개입을 넘어 전문상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개입 등 다각적 개입을 통해 발달지연 아동 가족이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제공은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중심 개입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탁성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지현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명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고성 옥천사 마음약방 콘서트 회향

지난해 10월 27일 첫 콘서트 시작해
월호스님 강연 · 가수 김무한 공연 등
구랍 29일 현진 스님 공연으로 회향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고성 옥천사가 구랍 29일에 지난해 10월 27일 시작한 '마음약방 콘서트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를 3회 째로 회향했다.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3회에 걸쳐 진행된 '마음약방 콘서트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를 회향했다.

고성 옥천사 주지로 부임한 마가 스님이 주지 진산식을 대신해 기획한 마음약방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27일 월호 스님의 행복알약 3종 세트 강연과 찬불가수 김무한의 공연, 11월 24일에는 마가 스님의 불효자 영화 상영과 붓다라마 최진규의 공연, 12월 29일 광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 강연과 찬불가수 현진 스님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구랍 29일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국민의례, 삼귀의, 반야심경, 내외빈 소개, 광우 스님 소개 및 법문에 이어 최연현 화백 그림 '차 한잔하시게!' 기증, 황명분(반야월)보살 노래, 현진 스님(화가, 음악가) 공연, 선우선방합창단 공연(천의 손 천의 눈), 마가 스님 인사말,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콘서트는 절에 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찾아 나서자 해서 3개월 전에 월호 스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처음 법회를 열게 됐다"며 "법회를 통해 내 마음속에 어둠과 응어리, 화를 풀어내고 저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진주를 캐내 한 번 밖에 없는 내 인생 멋진 회향을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광우 스님은 생활 속의 염불수행을 주제로 한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는 법문을 통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의 종교이고 수행의 종교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이해하고 생활하고 체험해야한다"며 "절에 다니면서 그 기도라는 맛을 보고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은혜라는 그 맛을 본 사람은 평생 불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또 "불교는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보는 종교이다. 불교는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앞에 행복과 불행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공덕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자신의 업을 닦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잘 닦아 나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회에 걸친 마음약방 콘서트를 회향하는 이날 법회에는 옥천사 마가 스님,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 고성 청련암 원명 스님, 진주 약사정사 진여 스님, 창원 미타사 선해 스님, 상공 스님, 대광사 상전 스님, 법성선원 정민 스님, 관음묘원 일진 스님, 현진암 현진 스님, 청담사 상연구소 허익구, 김규범,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불자회장 김용진교수 외 교수불자회원, 진주불교회관, 대한불교청년회 강인식경남지구회장, 성륜불교문화재단 선우선방, 거사림회, 권현옥 진주불교학생회 후원회장, 진주불교대학교학생회 및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마가 스님은 2023년에 부산, 창원, 진주에서 명상학교를 열겠다고 밝혔다. 3월 첫 째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열리는 명상학교는 마가 스님, 월호 스님, 심산 스님, 만초 스님, 금강 스님, 혜안 스님, 효록 스님, 최순애, 원정혜, 김창기, 조희창 교수들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고창 선운사 새해맞이 법회 열어

해넘이 · 해맞이 산사음악회 등
천마봉서 해맞이 법회 봉행해
총 7명 학생에 장학금 전달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는 구랍 31일 성보박물관에서 해넘이 · 해맞이 선운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김문주 前 BTN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해넘이 · 해맞이 산사음악회는 1부 개회, 내빈소개, 장학금 전달, 주지스님 인사말, 축사, 2부 음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음악회 후에는 재야의 범종 타종에 이어 새벽 산행길에 올라 천마봉에서 해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양동주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4명과 초 · 중 · 고 학생 각 1명씩 총 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난해 행복바라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사음악회는 여러 번 자연재해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연기를 거듭한 끝에 열린 음악회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열리게 되서 나름 의미가 있다"며 "더구나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줄 수 있게 되어 더 흐뭇한 자리가 된 것 같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선운사와의 인연을 오래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음악회는 통기타 가수 박강수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가수 박강수는 맑은 목소리로 추억의 노래와 올드 팝을 불렀다. 이어 '앙상블 동리율객'의 대금 창작곡 '다향', 첼로와 거문고 '육자배기', 거문고와 피아노 타악기 앙상블 '한오백년', 소리꾼 최영민의 춘향가 중 '쑥대머리'가 이어졌으며, 전 출연진이 홍보가 중 '박타령'을 연주했다. 또 첼리스트 김규식은 Saint-Saens의 'The Swan'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연주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하여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고창군종합사회관장 대원스님, 동국사 주지 재안스님 등 스님들과 임종혁 선운사 신도회장, 임정호 고창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현대FC 이승기, 금산중에 기금 전달

2019년에도 3000만 원 기탁



프로축구 전북현대FC 소속 이승기 선수가 전북현대 유소년 U-15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금산중학교에 축구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 금산중학교(교장 박기남)에 따르면 전북현대 이승기 선수는 이날 구랍 28일 금산중학교를 방문해 유소년 축구발전 기금 30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승기 선수는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는 전북현대의 유스팀인 금산중학교 축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축구발전기금이 후배들이 더 크게 성장해서 훌륭한 축구선수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기 선수는 금산중학교의 축구팀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에도 3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금산중학교는 이 기금으로 학교 축구장 조명탑을 설치해 축구선수들이 야간에도 훈련할 수 있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사암승가회 해넘이법회 봉행

계묘년 새해 힘찬 도약 기원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일원. 금산사 주지)가 해넘이 법회를 봉행했다. 구랍 31일 부안 대항리 해변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전북불교회관 주지 제환 스님, 우림 스님 등 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해넘이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임인년 한 해동 안 쌓인 업장을 참회하고 계묘년 새해의 희망과 전북지역 불교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서쪽으로 지는 2022년의 마지막 해를 바라보며 각자의 희망과 소원을 기원하며 정진을 이어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양불교사암연합회, 함양군에 장학금 기탁



함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오, 보림사 주지)는 구랍 29일 (사)함양군장학회를 찾아 지역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스님들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우리 사회가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곧 극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베풀어주신 온정과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 함양의 지역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거제 계룡사, 방화로 대웅전 전소

50대 방화용의자 체포 조사 중
인명피해 · 다른 전각 피해 없어



거제 계룡사(주지 선암)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전소됐다.

1월 3일 0시 30분경 발생한 화재로 129㎡의 계룡사 대웅전은 전소됐으며 화재발생 약 3시간 30분만인 새벽4시경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다른 전각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아 다른 전각의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한 남성이 흰 통을 들고 법당에 들어서는 모습과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서 3시간 만에 인근 주점에서 만취상태의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방화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남성은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사 관계자는 거제경찰서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화재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함양 서운암,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성금 106만 7000원 기탁



함양 서운암(주지 순민)이 구랍 29일,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6만 7000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서운암 내 자비실천함을 설치하여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것이다.

순민 스님은 "작은 나눔을 불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 뜻깊은 곳에 성금을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이웃돕기 활동에 우리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서운암 순민 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운암 순민 스님은 2014년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등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화엄사, 어려운 이웃에 떡국떡 기탁

떡국떡 50상자 기탁



김해 화엄사(주지 법륜)는 지난 구랍 29일 김해시 삼안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떡국떡 50상자(100kg)를 기탁했다.

화엄사 주지 법륜 스님은 "떡국은 새해를 맞는 대표적 음식으로 모든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눠먹으면서 가족 간 이웃 간에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새해를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후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소희 삼안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해주신 화엄사에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귀중한 성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엄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떡국떡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화엄사는 김해시 삼방동에 위치한 사찰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80호 지장보살본원경을 소장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견강암, 새해맞이 떡국나눔 봉사

회원 30여 명 봉사 동참



자비나눔 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이 구랍 28일 부산 사상구 고동바위 공원에서 떡국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떡국나눔은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인 (사)부산정각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위해 회원 30여 명이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재확산과 각종 사고와 고물가 시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새해에는 재난 사고가 없고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떡국을 준비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많이들 드시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라"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 (사)부산정각원은 법인설립 이전인 1995년부터 향공 스님과 함께 만발공양 및 장학사업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월서 대종사, 새해 맞아 자비나눔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대종사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월서 대종사는 1월 5일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과 독거어르신 가정 지원 김장김치 250kg(150만원 상당),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만 원을 마포구 공덕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또한 미얀마 양센 소재 S학교에 정비자금 5000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한편, 천호월서희망재단은 동남아 오지마을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얀마 바간 쉐띳마을 중학교 낙성 등 2012년부터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미얀마 등 불교국가에 구호활동 및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달라이 라마 "中, 불교 파괴…짓밟지 못할 것"

구랍 29~31일 보드가야서 설법
"중국 탄압에 신도들 믿음 커져"
불상 파괴한 중국에 강력 비판도
"결국 우리의 진실이 승리" 강조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가 지난해 12월 23일 인도 보드가야에 도착해 신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닷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불교 탄압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1월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Times of India) 등 외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전날 인도 북부 비하르주 보드가야에서 열린 연말 법회에서 "중국은 불교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믿음은 결코 짓밟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 비판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은 불교에 해를 끼치기 위한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 티베트 주민들은 독살당하는 등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사람들 곁에 서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도 불교를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자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불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순 없다"며 "그럴수록 신도들은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달라이 라마는 지난 3월 중국이 파드마삼바바 불상을 파괴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불교 말살 작업의 하나로 중국 내에 지어진 사찰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드마삼바바는 8세기 때 티베트에 불교를 보급한 인물이다.

또 달라이 라마는 신도들을 향해 "우리는 물리적으로 티베트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떨어져있지만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결국 우리들의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보드가야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의 설법 행사에는 약 6만 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보드가야는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성지순례지다.

앞서 달라이 라마는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인도 보드가야에 도착했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일 불자들은 공항에서부터 보드가야까지 약 10km 거리에 줄을 서 달라이 라마를 환영했다. 달라이 라마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마하보디 사원에서 신도들과 함께 신년기도를 올렸다. 그는 오는 1월 20일까지 보드가야에 머물 예정이다.

달라이 라마는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후 티베트를 탈출, 1959년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다.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해 병합한 후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한편, 망명 정부를 세운 달라이 라마를 '조국 분열 활동가'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불교를 탄압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티베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안하무인격이다.

급기야 중국 네티즌들은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스타 키아누 리브스의 티베트 관련 자선 행사 참석을 비판하며 영화 '매트릭스' 보이콧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인도 나란다 불교 전통의 인도히말라야평의회(IHCNBT)는 지난달 15대 달라이 라마의 승계 계획과 관련해 "달라이 라마는 영적 존재의 환생으로서 고유한 종교적 관습이자 내세의 철학이다"라며 "어떤 정부나 개인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과거 달라이 라마를 중국 황제가 지명했다고 주장하며 차기 달라이 라마 지명에 개입하려는데 대한 반발 조치다.

"소외계층에 '광명'을"

인도 내 비영리단체 FHSM
연말 무료 안과 검진소 운영


FHSM 활동 모습. 사진출처=FHSM

인도의 불교 비영리단체인 FHSM(Foundation of His Sacred Majesty)은 지난해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는 자비행을 실천했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가 지난해 12월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FHSM은 지난해 12월 25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안과 병원과 연계해 인도 남부 타밀 나두(Tamil Nadu)에서 무료 안과 검진소를 운영했다.

FHSM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라울 야시와단(Rahul Yashwardan)은 "무료 안과 검진소 운영 기간 동안 총 357명의 수혜자가 검진을 받았고 이중 28명이 백내장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74명에게는 안경을 지원하고, 84명은 추가 진료를 위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졌다.

FHSM 회장 가우타마 프라두(Gauthama Pradu)는 부디스트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실명은 인간을 가장 쇠약하게 만드는 장애 중 하나"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 중 1억8000만명이 심각한 시각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추정한다. 주요 원인은 백내장이며, 실명 인구의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명의 약 80%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백내장은 인도에서 달릿 계층 등 소외계층이 많이 앓는 질병 중 하나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시력을 잃다가 완전히 실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FHSM는 앞으로 매년 10차례 가량 무료 안과 검진소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백내장으로 인한 후천적 실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FHSM는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7번의 무료 안과 검진소를 운영, 총 2500명의 수혜자를 치료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라면 가게로 변신한 日 사찰 '화제'

중요 문화재 보존위해 라면 판매
채식 재료 사용…SNS로 입소문

"마치 까르보나라 같아요. 이런 라면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영혼까지 스며드는 맛입니다."
–수도 후쿠코(79, 교토 후시미구 거주)


채식라면 판매로 화제가 된 호조인 사찰.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주일에 세 번, '라면 가게'로 변신하는 일본의 한 사찰이 화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월 3일 "일본의 유서 깊은 한 사찰이 '한정판' 비건 라면을 파는 식당으로 탈바꿈했다"며 교토의 호조인(Hozoin) 사찰을 소개했다.

호조인 사찰은 일주일에 3번 오전 11시 일본식 라면인 '테라소바'를 판매한다. 단 호조인 사찰의 테라소바는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과는 다르다. 동물 살생을 금지한 불교 교리에 따라 만들어진 채식 라면이기 때문이다.

호조인 사찰은 푸드컨설턴트 출신인 한 신도의 도움을 받아 자체 레시피를 개발했고,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된장과 두유 등을 듬뿍 사용한다. 일반적인 일본식 라면에는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 '돈코츠'(돼지뼈)와 '토리가라'(닭뼈 등)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재료는 일절 사용되지 않는다. 흔히 고명으로 올라가는 '차슈'(중국식 돼지고기 구이)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호조인 사찰의 비건 라면에는 죽순과 옥수수, 미역, 고추 등 토핑이 올라간다. 각 토핑은 불교적 의미를 담아 '오색'(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 재료를 사용한다.

특히 흑후추와 비슷한 대만 향신료인 마가우가 호조인 사찰 비건 라면의 '비법'이다. 파스타의 일종인 까르보나라와 비슷한 식감이어서 일반 라면보다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주지 스님은 코도 모리이(Kodo Morii)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땐 단 한 명의 손님만이 왔다"며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 지금은 더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직접 식품위생감독 자격증까지 취득한 스님이 처음 라면 판매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일까.

바로 호조인 사찰에 보관된 중요문화재인 'Tetsugenban issaikyo hangi' 보존 작업을 위해서다. 해당 문화재는 에도 시대(1603~1867)에 호조인 사찰을 창건한 테츠겐 도코(1630~1682)의 바람에 따라 제작된 경판이다. 그러나 마땅한 경판전을 마련하지 못해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호조인 사찰은 문화재의 복구 및 보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라면을 판매하면서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있다.

호조인 사찰 라면 가게는 매주 목~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30그릇만 한정 판매하며, 3월 21일까지만 운영된다. 이후 봄철에는 간장 라면을, 여름철에는 젓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세계 각국 불자들, 새해 축하

일본, 70톤 종 108번 타종
태국에선 장례의식 체험도


교토서 열린 108타종 행사.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세계 각국 불교도들이 다양한 방식의 새해맞이를 통해 2023년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 교토 초온인 사원에서는 높이 3.3m, 무게 70톤에 달하는 대형 종을 108번 울리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객은 1000명으로 제한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의식을 생중계했다. 동참자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종소리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태국에서는 새해행사로 불자들이 스님이 집도하는 장례의식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다. 입관 체험을 통해 삶과 죽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참가자들은 "윤회와 카르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겔룩국제재단은 1월 1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새해맞이와 함께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기도회에는 1만 6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석조서 수묵으로 옮긴 오백나한 미소

〈石彫〉

홍성모 '영월인의 천년 미소' 展
2023 겸재 맥 잇기 초청기획전1
겸재정선미술관서 3월 1일까지

수묵 오백나한상 130여 점 전시
옻칠 · 석채 등 다양한 재료 시도
조각 질감 표현 위해 점묘법 사용
"나한의 미소로 대중 위로하고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선정에 든 나한, 64.5×47.5cm, 장지에 수묵봉채+황칠



여의주를 문 용과 석가모니불, 94×63.5cm, 장지에 수묵+옻칠

실경산수화가 홍성모가 영월의 사계와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선보인다. 겸재정선미술관은 1월 5일부터 3월 1일까지 '2023 겸재 맥 잇기 초청기획전1'로 홍성모의 '영월에 들고, 영월을 품다'와 '영월인의 천년 미소-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을 개최한다.

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영월의 사계를 그린 진경산수화 15점과 나한상을 그린 수묵화 130여 점을 선보인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나한상 그림은 영월 창령사 터에서 발굴된 오백나한상을 소재로 하고 있다. 홍 작가는 질박하고 안온한 미소의 나한상들의 모습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온갖 번뇌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한의 모습은 중생에서 부처로 향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홍 작가는 거친 화강암으로 조각된 나한상의 질감을 살려내기 위해 한지에 직접 옻칠과 황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돌가루로 만든 석채를 쓰거나 꽃물로 물을 들이는 등 재료에 대한 새로운 형식들을 시도했다. 정으로 쪼아낸 입체적인 나한상을 평면에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위해 점묘법을 이용했다. 정 대신 붓으로 조각을 한 것이다. 홍 작가가 나한상을 표현함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나한상에 대한 재해석이다. 부처의 제자이면서 깨달음을 얻은 나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한에 대한 불교적인 본래 의미까지도 담아내는 한편, 불상에서나 볼 수 있는 광배를 그려 넣기도 하고, 훈민정음의 글자들을 배경으로 하기도 했다. 또 고려시대에 국가에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나한재를 지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용의 모습을 나한상에 그려 넣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호랑이를 함께 그려 넣거나 불교의 사물(四物) 중 하나인 목어를 그려 넣기도 했다.

오백나한상 얼굴에 깃든 다양한 표정은 그 당시 대중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백의 얼굴 중에는 반드시 바라보는 이의 얼굴과 닮은 얼굴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백의 나한상은 깨달은 자의 모습이면서 중생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화가의 손을 거쳐 재탄생한 나한상은 바라보는 이의 번뇌를 없애주고 힘겨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홍 작가는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창령사 터 오백나한' 展에서 처음 오백나한상을 만났다. 그리고 바로 나한상에 매료되었고, 발굴된 나한상 317점 모두를 그리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 후 그는 나한상이 출토된 창령사 터와 최초 발견자인 김병호 씨를 찾는 등 나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고 한다. 홍 작가는 지금까지 250여 점을 완성했다.

창령사 터는 강원문화재연구소가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실시한 학술 발굴조사 과정에서 '창령사' 터였음이 밝혀졌다. 2001년 5월에 작은 암자를 짓기 위해 평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한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때 글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을 비롯하여 형태가 온전한 나한상 64점과 나한상의 머리 118점, 나한상의 신체 일부 135점 등 총 317점의 나한상이 발견됐다. 이후 나한상들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상설전시실에 일부 전시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2018년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展을 계기로 국립박물관 최우수 전시로 선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 전시됐고, 이후 부산시립박물관과 영월 귀향전, 2020년 호주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됐다.

창령사 터 나한상은 화강암을 높이 30~40cm 크기로 가공하여 한쪽 면을 다듬어 만든 형태이다. 나한들의 표정이 워낙 다양하고 사실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너무나도 인간적이며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나한들을 마주하면 누구나 그 질박하고 해학적이면서 친근한 표정에 매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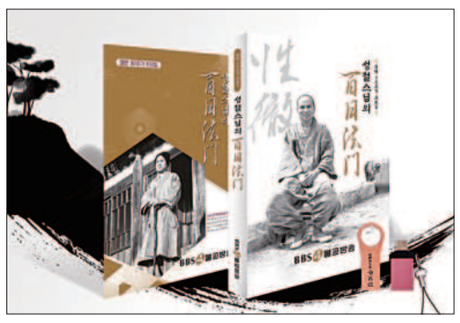
나한은 부처의 제자이면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과에 이른 이로,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성자를 말한다. 창령사 터 나한상은 불가의 진리를 깨우친 성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대중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이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기쁨에 찬 나한도 있고, 가사를 덮어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명상하는 나한도 있다. 또 산과 바위, 동굴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수행하는 구도자의 나한이 있는가 하면,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는 나한도 있다. 이처럼 모든 나한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중의 모습을 하고 있어 우리 마음에 쉽게 다가온다.

강원도 영월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모 작가는 실경산수화를 그려오고 있다. 발품을 팔지 않고서는 그릴 수 없는 그의 실경산수화는 체험적 교감의 과정이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형상을 내포한 풍경들을 새롭게 읽으며, 자연 속에서 느끼는 순수하고 보편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또한 전통을 중시하면서 자연이라는 변함없는 대상을 내면적인 의지를 담아 그려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나한상 그림 역시 그 체험적 교감의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홍 작가는 원광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동국대 예술대학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이당미술상, 한국 전문인 대상 등 다수 수상했다. 성균관대 예술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심사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위원장, 후소회 상임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 문의 (02)2659-2206.

'성철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USB' 발매

백일법문, 법어해설집, 특집다큐 등 담겨



BBS 불교방송이 성철 스님(1912~1993) 열반 30주기를 맞아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USB' 〈사진〉를 발매했다.

조계종의 간화선 확립과 신행 중심의 불심을 진작시킨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담은 USB 추모집에는 1993년 진행된 영결식과 다비식은 물론 성철 스님의 육성과 생전 모습을 담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완전판이 담겨 있다.

또 종정예하로서 설한 법어와 방송을 통해 소개된 스님의 자료 등을 집대성했으며, 자막과 해설을 추가해 법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성철 스님은 파계사에서 8년 동안 장좌불와수행을 하는 등 평생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했으며, 돈오사상과 중도사상을 설파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혜일 스님을 은사로 수계 · 득도한 뒤, 10년 간 금강산 마하연사, 수덕사 정혜선원, 천성산의 내원사, 통도사 백련암 등에서 안거를 지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왜곡된 한국 정통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봉암사 결사를 추진했고 1955년부터 10년 동안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했다. 이후 해인총림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었다. 1967년 동안거 때 설한 '백일법문'은 오늘날에도 수행하는 사부대중의 지침이 되고 있다. 돈오돈수론을 주창하여 불교계 안팎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81년부터 조계종 6 · 7대 종정예하에 취임해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존경받고 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1967년 성철 스님께서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된 후 백일 동안 진행한 법문으로, 아함경과 남전대장경에 나타난 원시불교의 이론을 대승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또 대승의 제반사상인 중관과 유식에 대해서도 강설하고 있으며, 천태와 화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의 요점과 삼론종, 유식 법상종의 중도사상, 중국 선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선종의 돈오 등에 대해 강설한 것이다.

BBS 불교방송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성철 스님 말씀에 대중이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은 조화와 융합이 필요한 오늘날에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 제시와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라며 "추모집이 불자들의 수행과 삶에 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USB' 구매 안내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포교자료팀) (02)706-3502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완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4~1/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도표로읽는경전입문:방대한팔만대장경의세계가도표로한눈에들어온다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2	보리도차제의마르티일체지로나아가는지름길:수행의길과경론의핵심들을담고있는논서	뻰첸라마 롭상예	운주사	7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3	정토삼부경(불교경전7)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		민족사	8	사찰의비밀(일주문에서대웅전뒤편산신각까지구석구석숨겨진)	자현 지음	담앤북스
4	부처님의생애(보급판)2판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9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5	월호스님의선가귀감강설	월호 지음	조계종출판사	10	가장행복한공부(청화큰스님말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책세상

절집의 '신 스틸러', 그들의 진귀한 비밀 캐내다



사찰속숨은조연들
노승대 지음
불광 펴냄/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찰 구석구석 기묘한 존재들의 진기한 내력

사찰은 신전(神殿)이다. 전각 한 가운데에 위치한 부처님을 제외하고도 사찰 구석구석 '초월적'인 능력과 '기괴한' 외모(?)를 지닌 존재들이 조각이나 그림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큰 사찰인 경우는 그 수가 100명 이상이 되어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이다. 불교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거느린 권속(眷屬)까지 헤아리면 사찰에 구축된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신화나 북유럽 신화의 세계만큼이나 거대한 규모이다.

요즈음에 이들은 간혹 만화나 영화, 웹툰 등에 등장하기도 한다. 웹툰 원작 영화 〈신과 함께〉에서 망자(亡者)인 주인공을 심판하는 왕들(시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영화 〈사바하〉에서 악귀 잡는 악신으로 일컬어진 네 신(사천왕)을 비롯해 만화 〈극락왕생〉에 등장하는 보살들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등이 그렇다. 이들은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로 명품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그런데 이들이 펼치는 판타지 이면에는 기원전 인도서 시작되는 오래되고 광범위한 역사와 갖가지 사연이 있다. 그럼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절집에 자리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가히 '신(神)'이라 할 수 있는 사찰 속 기묘한 존재들의 숨은 내력을 조명한다. 종교 역사, 신화와 설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밝혀진 그들의 정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단순한 흥미를 넘어 남다른 의미로 놀라움을 선사한다.

40여 년간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귀동냥해서 수집한 이야기 보따리들을 통해 저자는 우리 절집에 자리한 사후세계는 물론 천상의 세계로 안내하며 진귀한 경험을 선물한다.

우리가 사찰을 하나의 무대라고 상상해 보자.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부처님'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명품 조연'들이 있으니…. 그들은 사찰에 들어오는 이들을 향해 주먹을 날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거나, 여섯 개 팔에 날 선 무기를 지닌 채 성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옆엔 이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천진한 미소를 지닌 동자들이 뛰놀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면서도 한없이 바빠 보이는 존재도 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고, 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전각과 불상, 탑 등을 이야기하는 여느 문화재 안내서와 달리 조각이나 그림으로 남아 절집에 모여 사는 동식물, 우리 전설 속 존재 등 뜻밖의 대상을 소개한 전작으로 주목 받은 저자가 이번에는 가히 신(神)이라 할 수 있는 사찰 속 기묘한 존재들의 진기한 내력을 뒷조사 한다. 그렇다면 40여 년 사찰 문화답사 경력의 전문가인 저자가 만난 '절집의 숨은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절집 신비한 존재 찾아 떠나는 모험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불교서 말하는 사후세계, 즉 명부(冥府)의 존재에 관한 내용이다. 지옥 중생 구제를 대원(大願)으로 삼은 지장보살과 협시(夾侍)인 도명존자 · 무독귀왕, 그리고 열 명의 지옥 심판관인 시왕과 중생의 생전 선악(善惡) 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해 보고하는 선악동자 등이 그 주인공이다.

제 2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를 보호한다고 하여 '호법신중(護法神衆)'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이야기이다. 사찰 입구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방문자들을 맞는 사천왕과 금강역사, 여덟 그룹의 신중 부대인 팔부신중, 신중들을 호령하는 젊은 장군 신 위태천 등이 거론된다. 마지막 3부는 부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는 협시, 그리고 괴팍한 성격을 가졌지만 중생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알려진 영험한 존재 나한을 다루었다.

저자는 이들 존재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우리 사찰에 자리하게 된 경위까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추적한다. 그 근거는 종교와 역사의 오랜 문헌과 기록, 민간에 이어져 온 설화와 신화, 옛 인도 땅과 중국, 우리나라 등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저자는 이들을 종합해 이제 미지의 존재와 공간이 되어버린 이 책의 주인공들과 그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걸 목표로 한다. 한 예로 망자가 경험하게 될 명부 여행의 과정을 한국판 〈신곡〉을 그리듯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리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속 진귀한 세계로 떠나는 모험에 기꺼이 가담케 한다.



사진은 오도전륜대왕도. 상단 중앙의 봉익관을 쓴 오도전륜대왕과 판관 등의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지옥과 지옥문이 묘사돼 있다.

웹툰 〈신과 함께〉서 주인공인 자홍 심판하던 명부의 왕들
영화 〈사바하〉서 악귀 잡는 악신으로 소개된 네 장군 신들
이들은 누구이고, 왜 우리 절집에 자리하고 있는지 조명해

한국형 판타지의 신 스틸러가 되다

사실 우리는 비단 사찰의 조각과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의외의 순간 이들을 만나왔다. 각 부에 소개되는 사찰의 신비한 존재들은 한국형 판타지의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꼽자면, 웹툰 원작의 영화 〈신과 함께〉에는 주인공인 망자(亡者) 자홍의 생전 선악을 심판하는 명부의 존재로 염라대왕을 필두로 한 '시왕'이 등장한다. 영화 〈사바하〉에는 악귀를 잡는 악신으로 '사천왕'이 소개되고, 인기 만화 〈극락왕생〉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문수보살'을 비롯해 주인공을 돕는 '도명존자'와 그의 라이벌 '무독귀왕'이 등장한다. 제목을 상징적인 의미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화 〈아수라〉나 〈야차〉의 경우가 그렇다.

이렇듯 친숙하고도 낯선 존재들은 불교의 세계관을 응축한 공간 안에 조각이나 그림으로 봉안되어 나름의 일가를 이룬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타임라인 위에서 현실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 구제를 위해 저마다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신비함 이면에 새겨진 거대한 역사

놀라운 것은 이들 이면에 새겨진 역사적 맥락을 더듬어 볼 때 거대한 지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원전 인도에서 서역, 중국을 거쳐 우리 땅에 도래하였다. 더욱이 그 오랜 기간, 광대한 지역을 건너오며 각 지역 문화와 습합 및 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그 문화권에서 숭앙된 타 종교나 민간신앙은 물론 전쟁이나 기근 등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한 예로 신중 가운데는 비슈누, 시바 등 힌두교의 신이나 우물 신, 측신 등 우리나라 재래신도 포함된다. 한편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혼란 상황 속에서 조성된 조선시대 사천왕상 발 밑에는 왜군, 청나라 병사의 조각이 악귀 대신 자리한다.

중생의 삶에 더욱 가까운 존재로 민중에게 있어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신이자 복, 장수 등을 빌 사복신(賜福神)이 된 불교의 신.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염원과 소망, 불안과 고통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증거로서 단순한 흥미만으로 읽어 넘기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삶의 여러 순간 그들을 향해 기도해 온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세대를 거듭하며 생경해졌으며 더욱 신비하기만 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순 흥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들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그 과정서 독자는 절집에 자리한 이들의 오랜 역사에 한 번 놀라고, 신비함 이면의 진짜 의미에 두 번 놀라게 될 것이다. 이제 저자의 안내에 따라 저승인 명부는 물론 불교의 신들이 사는 하늘세계와 부처님의 일가를 이룬 협시와 나한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자.

▲저자 **노승대**는?

경기도 양주서 출생했다. 1975년 입산해 광덕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0여 년 뒤 하산했다. 구도의 길에서는 내려왔으나 그 길에서 찾던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내려놓지 않았다. 1993년부터 문화답사모임 '바라밀문화기행'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7년간 인사동문화학교 교장을 맡기도 했다. 인사동문화학교 졸업생 모임인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도 전국 문화답사를 다닌다. 그는 가족 같은 동호인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금생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항상 길 위에 있다. 답사 틈틈이 〈불광〉 〈사람과 산〉 〈템플스테이〉 등에 우리 문화와 관련된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저서로는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바위로 배우는우리 문화〉가 있다.

불가佛家문학과 선가禪家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원불교학술총서 • 5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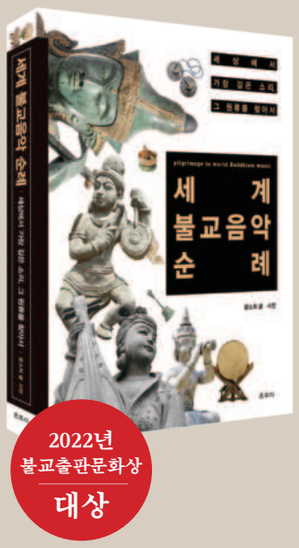
고려 말의 뛰어난 선사로서 특출한 선시와 어록을 남긴 백운, 태고, 나옹의 문학을 선적 통찰과 문예 미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전재강 지음/신국판/312쪽/값 20,000원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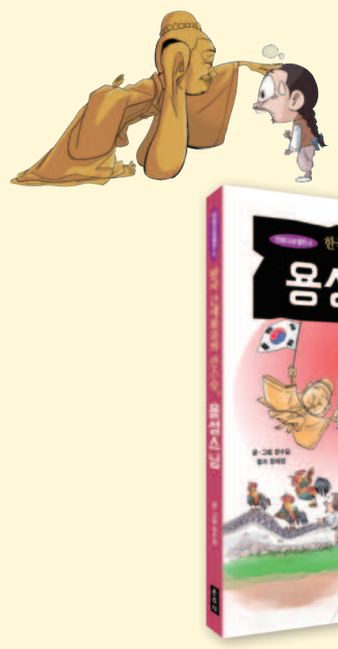
2022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는 용성 스님 일대기!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마음공부란 모든 굴레 벗어나 자유와 영원한 안식 얻기 위한 것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2만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 불교 역사상, 마음공부 세계의 역사상 이렇게 공부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문답집은 없었다. 법을 보는 투철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의 답변은 대개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 이 책도 익숙하고 뻔한 대답이 아닌,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놀라운 대답으로 풍성하다. 마음공부, 선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진정한 효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독보적인 책이다. 마음공부란 모든 굴레를 벗어나 끝없는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공부다. 이 공부는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 새롭고 낯선 길을 걷는 것이기에 모르는 것 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길을 가는 공부인에게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줄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마음공부의 길을 걷는 공부인들의 진지한 질문과 선지식(善知識)의 친절한 답변이 옹골지게 담긴 책이 출간되었다.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은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구도자들의 갖가지 물음에 답한 글 가운데 326개를 선별했다.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해, '마음공부란 무엇인가?, 믿음과 발심, 깨달음과 수행, 견해에서 벗어나기, 마음공부의 바른 길, 마음공부의 어려움, 마음공부와 사회생활, 체험과 그 뒤의 공부, 별별 질문들'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묶었다. 무려 19년에 걸친 질의응답을 엮었으므로 대다수 구도자가 품을 만한 질문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공부인을 위한 거의 모든 문답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부제는 초심자를 위한 입문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유익한 책이다. 법을 보는 안목이 꽤 갖추어진 사람들을 위한 '심화편'도 추후 출간할 예정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조사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선(禪)을 공부하여 불법(佛法)을 깨쳤으며, 무심선원을 설립하여 20여 년 동안 마음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선어록과 경전 번역서, 설법서 등 수십 종의 저서도 꾸준히 출간하는 등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까닭에 문하에서 불법에 눈을 뜬 사람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마음공부의 길은 무수한 오해로 점철된 길이며, 끝없이 오해를 바로잡는 길이다. 대다수 공부인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도 알고 보면 오해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오래 공부해도 진정한 효과를 보는 사람이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오해와 무지로 인해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이 공부를 돕는 일 중 상당 부분은 오해를 바로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경전과 선어록 등을 근거로 수많은 오해를 교정해 주며, 바른 관점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공부하도록 안내한다.

마음공부 길에서 묻는 326개 질문과 답
눈 밝은 선지식의 올바른 공부 안내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관점 바로 잡는다
바른 관점 갖춰야 공부 효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행자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오매일여'다. 깨어 있을 때나 깊은 잠을 잘 때나 화두가 똑같이 들리는 것이 오매일여이며, 이 상태를 거쳐야 깨닫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동정일여, 몽중일여를 지나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 애써 수행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33조사와 1,700선사 가운데 동정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를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분은 아무도 없으며,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 그리고 간화선 창시자인 대혜 종고 스님의 일화에 오매일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대혜 스님이 깨닫기 전에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오매일여에 관한 답변 중 일부를 보자. "대혜는 애초 깨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의식(意識)과 마음가짐을 잠잘 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오 선사는 그것을 헛된 생각 즉 망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뒤에 원오의 한마디 말을 듣고서 문득 깨달아 망상에서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한결같다는 경전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의식(意識)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 늘 하나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 생각하기를 자나 깨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 객관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곧 자나 깨나 하나가 된다는 말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 책은 '마음공부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아트만은 무아와 다릅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화두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 체험이 깨달음일까요?' '체험한 뒤에는 어떤 공부를 합니까?' 등등 3백여 개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져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로 긴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답변을 모은 것이지만, 내용이 산만하지 않으며 잡다한 개념이나 지식을 주지도 않는다. 대신, 구도자들이 온갖 분별망상을 벗어나 둘이 없는 불이(不二)의 진실에 눈을 뜨도록,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참된 마음을 깨닫도록 시종일관 이끌어 간다. 한국 불교 역사상, 마음공부 세계의 역사상 이렇게 공부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문답집은 없었다. 법을 보는 투철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의 답변은 대개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 이 책도 익숙하고 뻔한 대답이 아닌,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놀라운 대답으로 풍성하다. 마음공부, 선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진정한 효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자 **김태완은?**

부산 무심선원 원장이며,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부산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에서 선학(禪學)을 전공하는 동안 스승인 박홍영 거사를 만나 선을 공부했으며, 수년 전부터는 무심선원을 열어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선으로 읽는 금강경〉 〈선으로 읽는 대승찬〉 〈선으로 읽는 신심명〉 〈선으로 읽는 반야심경〉 〈마조어록〉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등이 있다.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 논하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강의
홍창성 지음
운주사 펴냄/1만5천원

1,400년 전통의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서양철학 교수가 풀어내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저자는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과 의례가 살아 숨 쉬며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한다. 이처럼 이 책은 현대 서양철학의 언어와 논리, 사유방식으로 불교철학을 해석함으로써 불교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서양철학 전공하고 불교철학 강의하는 철학교수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철학 교수인 저자는 서양철학을 전공하고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불교철학을 강의하는 독특한 이력을 보여준다. 이런 강의를 토대로 몇 년 전에는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를 펴냈다. 철학으로서 불교를 강의한다는 것은 그가 불교를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철학이란 그 어원처럼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에게 불교는 '지혜'의 종교, 즉 철학이기도 한 것이다. 불교가 철학인 이상 그 언어와 논리, 사유체계는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가 현대철학자로서 불교를 바라보는 기본인식이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통찰하고, 불교야말로 존재와 사유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임을 증명한다.

저자, "불교는 종교뿐 아니라 철학이다"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사상과 교리 통찰
불교, 존재사유의 과학적·합리적 가르침

불보종찰 통도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과 논강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던 저자가 이번에는 통도사승가대학의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불교철학을 강의했다. 승가대학은 전통적으로 강원이라 불리던 승려 교육기관으로, 학인스님들은 4년 동안 경전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한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불자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적었던 저자는, 뜻밖에도 승려교육의 현장에서, 학인스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펼쳐보이고 피드백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불교에 문외한인 미국 학생들과 달리, 이미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고받는 대화 역시 격이 다르다.

무아서 정토까지, 현대 형이상학과 불교의 만남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의 불교철학 강의가 서양철학적 소양을 지닌 반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불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양을 지닌 반면 서양철학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학인스님들이 대상인 만큼, 접근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자가 서양철학을 전공한 만큼 사유방식이나 접근방식, 사용하는 용어 등이 전통적인 교수법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서양철학으로 불교하기'라고 하겠다. 독자들은 글을 읽어가면서 '불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홍창성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형이상학과 심리철학, 불교철학 분야의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저자는 지난 2015년에 시작되어 국내 불교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깨달음 논쟁' 당시 누구보다 많은 분량(8편)의 글을 기고하며 논쟁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후 월간 〈불광〉 〈불교문화〉를 비롯한 매체에 불교철학 관련 글을 연재하였으며, SNS에서 'Yumaa Hill'이라는 필명으로 국내 독자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현응 스님의 저서 〈깨달음과 역사〉(불광출판사)를 부인이자 동료 교수인 유선경 교수와 공역하였고, 함께 저술한 〈생명현상과 불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현재 Buddhism for Thinkers(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를 집필 중이기도 한 저자는 마음과 물질세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전공 분야 논문을 영어와 한글로 발표해 오고 있으며, 불교의 연기의 개념으로 동서양 형이상학을 재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

▶ **소설가 백금남은**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주목을 받으면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됐다. 2003년 민음사 올해의 논픽션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 〈소설 신윤복〉 〈소설 법정: 바람 불면 다시 오리라〉 등을 발표했다. 2013년에 발표한 〈관상〉은 영화로 제작되어 '관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궁합〉 〈명당〉과 함께 역학 3부작으로 꼽힌다.



석가모니가 아난에게 전한 '검'

어느 날 문득 1



여름이 시작되면서 비가 잦았다. 어제가 겨울인가 싶더니 새싹이 돋고 산등성이에 꽃이 지천이었다. 그러다 여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우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도 비가 오려나 하다 보면 날이 어느새 고개를 들었다. 우기의 변덕이야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만 왜 새벽이면 날이 궂는지 모를 일이었다.

여름휴가라고 해야 꼭 이틀 쉬었다. 그것도 지방으로 내려가 제사를 모시니 어쩌니 하면서 겨우 빼앗듯이 찾아 먹은 휴가였다.

신문사로 나오기가 무섭게 국장이 찾는다고 하였다. 출근 도장이나 찍고 보조와 아침 해장이나 할까 했는데 뭔 일로? 하면서 국장실로 향했다. 김 보조가 따라오면서 투덜거렸다.

-술 때문에 속이 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작 마시라고 했잖아.

-뭔 소리를 할라고 아침부터 호출인지 모르겠네요.

-너 먼저 가서 해장국 시켜 놔. 국장 만나보고 금방 갈 테니까.

-그러다 못 오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금방 갈 테니까 먼저 가.

-알았어요.

국장실로 들어서자 국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났다.

-어떻게 돼가?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묻는 것 같았다.

-예상대로예요.

-앉아.

국장이 찻주전자에다 직접 물을 받았다. 커피머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주전자로 물을 데우는 것이 성가실 텐데도 커피머신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남들 눈도 있고 하니 제발 궁상을 떨지 말라고 해도 직접 물을 데워 타 먹는 차 맛이 좋다며 고집을 부렸다.

국장이 찻물을 데우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강압적이다가도 곤란한 일이나 어려운 부탁을 할 때면 자신의 방으로 불러 차를 내놓는 수법을 아는 터라 이 화상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하는데 생각보다 찻물이 빨리 끓었다.

이내 두 사람 앞에 차가 놓였다.

-마셔.

국장이 그렇게 말하고 먼저 찻잔을 들어 올려 호륵하고 마셨다.

차를 입속에 넣고 이리저리 굴렸다. 중국 취재 갔다가 사 왔다는 녹차 맛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차 맛이 이만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찻잔을 놓으며 시선을 들었다.

-앙코르 와트 취재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지?

-그래서인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국장이 찻잔을 들며 나를 힐끗 건너다보았다.

-또 나갈 일이 생긴 거 같아.

-네?

-방금 종정 예하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자신의 근영을 그린 금어(金魚:불화를 그리는 이) 얘기를 하더군.

-금어?

-그가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이곳 말사인 천추사원(千秋寺院)에서 화재로 죽었다는 것이야.

-죽어요?

-이지안이라고… 탱화 잘 그리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금어 되기 전에 한때 종정 예하 상좌질을 했었다거든.

-그래요?

국장이 찻잔을 놓으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맞아. 두 해 정도 시봉 질을 했다고 하더군. 그러다 하산했는데 그 후 탱화 그리는 스님을 따라가 금어가 되었던 모양이야.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인도의 천추사원에 계신 금원 조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묘하다는 것이야.

-묘해요?

-이지안이란 금어 스님이 왜 인도로 들어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야. 인도 정부에서 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모르겠다는 것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

국장이 못을 박듯 이어 말했다.

-예?

-좀 전에 종정 예하께서 이걸 보라고 하더군. 천추사원에서 전문이 하나 날아왔는데 이상하다는 것이야.

국장이 일어나더니 자신의 자리로 가 책상에서 무엇인가를 적어놓은 메모를 가져왔다.

두 장이었는데 그는 내게 한 장만 내밀었다. 한 장을 오른손에 들고 말했다.

-이걸 한 번 읽어봐.

그는 왼손에 든 종이를 내 앞에 놓았다.

하늘 연못 스리나가르.

스리나가르로부터 남동쪽으로 59km 떨어진 비즈비하라.

비즈비하라로부터 13km 떨어진 아이슈 무쿠암(Aisb-Muquam).

어둑어둑 어스름이 밀려오는 초저녁이었다. 간밤의 비로 인해 길이 질척거렸다. 다시 비가 오려는 것인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었다.

두 사내가 얼큰히 술이 취한 모습으로 아이슈 무쿠암이란 동굴로 다가들었다. 그 동굴 안에는 테르덴(옛 성인들이 남긴 성물을 찾아내는 이)이 살고 있었다. 9대째 가업을 이은 사람이었다. 그가 살고 있는 무쿠암 동굴은 본시 이슬람교의 성인의 유물함이 놓여 있는 곳이었다. 이 유물함이 인도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이름은 왈리 쉬라였다. 그의 조상 왈리 마하라는 15세기 술탄 통치 기간 술탄이 파견한 지방관 사이크 노르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 아난존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칼 하나를 받았다. 그는 왈리 마하라에게 아난존자의 칼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아난존자에게 전해진 검이다. 그 임자가 언젠가 이 세상으로 돌아오리니 그때 빛을 보리라.

그렇게 석가모니 붓다의 검은 전해졌고 왈리는 그 성물을 석관을 짜 그 속에 넣고 푸른 보자기를 덮어 보존했다. 그리고는 잡인을 금지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문이 나지 않을 리 없었다. 왈리의 후손들이 인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 성물을 지키고 있었으나 성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어서 성물을 노린 사람들이 근접하다가 목숨을 잃고는 하였다.

일부에서는 현대식 건물로 옮겨 성물에 맞는 적당한 환경을 만들고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그러질 못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득이 원시적 방법으로 성물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술에 취한 두 사내가 성물이 있는 건물로 접근했다. 주위를 지키는 군인들이 마침 한눈파는 사이였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명령조차 없자 그들은 철조망을 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성물이 들어 있는 석관은 푸른 보자기에 덮여 있었다.

그들은 석관을 향해 다가들었다.

-흐흠, 우리들의 손길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군 그래.

-우리는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을 걸세.

-자네 성물을 꼭 팔아야 하겠는가?

-그럼 목숨을 걸고 여기는 왜 들어왔는가? 그가 성물만 가져다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예로부터 말이 있다네. 성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영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성물의 힘으로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병든 자가 없다는 것도 그래서가 아닌가.

-아무튼 가져나가고 보자.

-그러자.

두 사내는 성물이 든 석관을 향해 손을 뻗쳤다.

그 순간이었다. 그들은 보았다. 성물이 든 석관을 붙들고 울고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을. 초로의 사내. 누더기에 몸을 감싸고 지친 빛이 역력한 사내가 석관을 붙들고 눈물을 쏟고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눈을 크게 떴다. 이내 사내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들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사내 하나가 용기를 내어 석관 위에 덮인 푸른 보자기를 벗겨내었다. 푸른 이끼가 낀 석관이 드러났다.

뒤늦게 그들의 침입을 눈치챈 군인들이 달려와 순식간에 그들을 에워쌌다.

갑자기 마른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졌다. 군인들이 거리를 좁혀 왔고 두 사내는 석관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체포되었다.

2

-이게 뭡니까?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읽고 난 내가 물었다.

국장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이원섭 기자의 솜씨야. 조간 시문에 난 기사를 보고 내가 다시 써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긁거 놓았네. 그런데 그 뒤가 더 이상해?

국장이 말을 하는 사이 나는 다시 글을 살펴보다가 시선을 들었다.

-더 이상해요?

-이걸 마저 읽어봐. 이 기자에게 정리를 좀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긁거 놓았어.

국장이 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마저 내게 내밀었다.

그날. 종정은 잠시 쉬는 틈을 타 눈을 붙였다. 단 한 시간도 한가롭게 쉴 수 없는 나날이었다. 전 종정의 뒤를 이어 자신이 종정 자리를 맡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 이것저것 인수할 것도 많았지만 익혀야 할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계속〉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대만 성지순례 5일













지도법사 : 설오스님
법등사 주지, 유튜브 설오 스님TV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순례기간 : 2023년1월13일 ~ 1월17일(5일)

동참금 : ₩ 1,890,000원 / 현금할인가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30만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주세요.

▮ 주요일정 :인천-가오슝-불광사-대흥선사-도원(타이페이)-조개-쟈오시-화련-도원-인천
▮ 입금계좌 : 농협 301-0088-7942-11 예금주 : ㈜케이투어
▮ 여 권 : 출발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출국가능
여권사진이 나온 부분을(여권사본) 헨드폰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 ajetours@naver.com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❶ 불복장(佛腹藏)



▶ **구미래 소장은** 불교민속학 박사. 동국대 · 중앙대 · 경기대 외래교수,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 불교민속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양간의 수행자들』,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한국인의 상징세계』 등이 있다.

성스러운 대상에 담는 간절한 소망



오방법사들이 오보병에 넣을 물목을 나누는 모습

신성한 조형물에 물목 넣는 행위
소망 성스런 대상에 내장하는 것
하나하나에 간절한 발원들 담겨
지역문화 알리는 타임캡슐 되기도

불상의 정수리에서 몸체로

탑과 불상은 모두 부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된 탑이 자연스레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하면서, 불상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불상은 불멸(佛滅) 이후 5백 년이 지난 1세기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부처님의 형상으로 빚었지만 사리 혹은 이를 대신할 성물(聖物)을 불상에 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탑에 사리를 모시듯 부처님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봉안함으로써 단순한 조형물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불상에는 정수리에 사리를 모셨는데, 간다라 불상의 육계(肉髻)를 보면 홈을 판 흔적이 있어 사리를 넣은 장치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화는 3~4세기경 서역을 거쳐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아울러 탑과 불상에 모실 사리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점차 사리를 대체할 물목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탑에는 법사리(法舍利)인 경전 등을 모시고, 불상의 경우 보배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로 전개된 것이다.

이처럼 불상에 다양한 물목을 모시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몸체 안에 내장하기 시작한 것이 '불복장(佛腹藏)'의 시초이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복장작법'은 불상 내부에 여러 물목을 봉안함으로써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을 뜻한다. '복장(腹藏)'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이며, 중국에서는 '장장(裝藏)', 일본에서는 '납입(納入)'이라 부르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불복장 사례는 4~6세기에 조성된 아프가니스탄 바미얀의 석불로, 불상 내부에서 사리 · 경전 · 직물 등이 발견되었다. 이후 봉안 물목은 밀교 의식과 결합해 정교한 양상을 띠게 된다. 653년에 한역한 〈다라니집경〉을 보면, "불단의 사방에 번기, 꽃, 방울, 노리개, 거울, 8향 5곡, 오보병, 백개자 등으로 장엄하고 다라니공양 · 꽃공양 · 향공양을 올리면서 의식을 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복장물과 유사하여, 불상을 모실 때 주변을 장엄했던 요소들이 점차 불상 안으로 옮겨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당나라 때 불상 내부에 여러 공양물이 봉안되었고, 9세기에 이르면 오장(五臟) 모형의 복장물이 등장한다. 비단 등으로 간장 · 심장 · 비장 · 폐장 · 신장의 형상을 만들어, 각 장기 안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사리 · 옥 · 향 등을 넣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부터 불복장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일본에도 10세기 말의 유물이 전하여, 동북아 삼국에 불복장이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성한 조형물에 물목을 모시는 행위는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함이자, 인간의 소망을 성스러운 대상에 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탑 · 불상 · 불화 등에 봉안하는 물목 하나하나에는 신도들의 간절한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불화를 조성했을 때는 주머니에 넣어 그림에 달아놓게 되는데, 이를 '복장낭(腹藏囊)'이라 부른다.

이러한 종교적 심성은 민간에서도 다르지 않다. 마을에서 정성 들여 쌓은 돌탑에 공동체의 소망이 담긴 상징물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탑 속에 오곡단지를 넣어 풍년을 빌고 쇠스랑을 넣어 재화를 긁어 들이는가 하면, 부적으로 액을 쫓기도 한다. 마을 다리가 지네 형상이면 두꺼비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불길한 기운을 물리치고, 화재가 잦은 마을에서는 숯을 넣어 불기운을 누르며 공동체의 소망을 탑에 담는 것이다.

불교사상의 상징성과 종교적 장엄미 갖춰

우리나라의 불복장은 고려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더 이른 시기로 766년(혜공왕 2)에 조성된 석남사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에서도 복장물을 모신 사리 항아리가 발견되었다. 몸체가 아닌 대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불상에 복장물을 내장하는 관념은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고려의 불복장은 1274년 이전의 개운사 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열 건이 넘는 사례가 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불복장의 구성을 보면, 몸체의 아래쪽 배에는 직물류 · 다라니를 채우고, 그 위에 경전과 발원문 · 시주질 등의 문서를 두었다. 가슴 부분에는 나무나 은으로 만든 합(盒)을 두고 그 속에 오곡 · 오향 · 오보 · 오약 등을 넣은 오보병(五寶甁), 사리함, 구슬 등을 내장했다. 마지막으로 목 부분에는 동제 방울인 후령(喉鈴)을 두어 소리로써 생명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큰 틀의 정형성은 고려 때부터 갖추어져,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불복장이 보편화되는 한편으로 법식은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한다. 가장 큰 변화는 '방울'이 '관'으로 바뀐 점이다. 후령이 사라지고 합이 후령통으로 바뀌면서 원통의 뚜껑에 긴 관을 만들어, 내장된 복장물의 생명력이



오보병을 싸는 모습

관을 통해 뻗어나감을 상징하게 되었다.

불복장의 물목과 절차는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다. 내장단계는 오보병→후령통→황초폭자(黃綃幅子)→불상 내부의 네 단계에 걸쳐 백 개에 가까운 물목이 내장된다. 후령통에 내장할 오보병을 조성할 때면, 5명의 오방법사(五方法師)가 둘러앉아서 오곡 · 오보 · 오약 · 오향 등 13가지 물목을 오방색에 따라 다섯 곳에 나누어 넣는 장엄한 의식이 펼쳐진다. 이들 물목은 자연의 일체를 압축해 내장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오보병에 들어가는 물목만 해도 병을 포함해 총 70개에 이른다.

오륜종자에 의해 싹이 튼 보신(報身) · 화신(化身)이 법신(法身)을 상징하는 후령을 울리면, 사리가 오색 기운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상징성을 지녔다. 각 방위에 따른 오보병은 종자(種子)의 역할을 하여 중생계에 필요한 곡식과 약과 향 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사상의 내밀한 상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교한 납입은 종교적 장엄미와 예술성을 지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오늘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상을 조성할 때 점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500년대부터 〈조상경(造像經)〉을 펴내어 독자적인 불복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상경〉은 한국에만 있는 경전으로, 불상 조성의 의미와 함께 불복장 을 위한 설단과 의식, 물목의 종류와 조성절차 등을 정립해놓았다.

전통 법식 또한 중국 · 일본에서는 오장을 모형화한 복장물로 생명력을 드러낸 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장 대신 후령과 후령통의 상징성을 취했다. 초기에는 목[喉]의 방울[鈴]로 생명력을 드러냈다면, 이후에는 법력으로 내장된 복장물의 생명력이 후령통의 관을 통해 바깥으로 뻗어나감을 상징한 것이다.

현재 의식을 갖추어 행하는 불복장은 우리나라 외에 티베트가 유일하다. 티베트의 경우 수미산이자 불탑을 상징하는 막대에 경전과 다라니를 말아서 몸체에 넣고 향가루를 채우며, 나머지는 모두 좌대에 내장한다. 이때의 물목은 오보병 · 경전 · 다라니뿐만 아니라 칼 · 권총 등의 무기와 지폐 · 동전 · 수저 · 사탕 등으로, 의식에서부터 복장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성 주체들의 다양한 소망 담긴 '타임캡슐'

불상을 조성하는 일은 불자들의 신앙심이 가장 고조되는 의식이다. 이에 '복장물은 반드시 시주로 채워야 한다'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신도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물목의 보시나 사경 등에 참여함으로써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런데 규범적인 불복장과 나란히, 조성 주체의 다양한 바람을 반영한 규범 밖의 물목들을 살필 수 있어 흥미롭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대산 상원사의 목조문수동자좌상에서는 명주 적삼 2점과 세조 대의 회장저고리 등 파격적인 복장물이 나왔다. 회장저고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저고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뒤쪽에 '장씨소대(長氏小對)'라는 글씨가 있어 저고리 주인이 장씨 성을 지닌 세조의 후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탑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고대의 탑에서 '공양물'이라는 범주 속에 광범위한 내장물을 살필 수 있다. 그 가운데 바늘 · 침통 · 가위 등의 바느질 용구가 발견된 분황사 모전석탑의 사례는 놀라움을 준다. 이들 공양물은 신라 선덕여왕의 것으로, 조성 주체의 열망이 담긴 물품이었다. 탑의 조성목적이 왕권 강화에 있었고, 선덕여왕 스스로 부처와 동일시한 행적의 하나로 자신의 물품을 탑에 내장한 경우라 하겠다.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불복장의 사례를 살필 수 있다. 특히 신도들이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소중한 반지를 빼서 복장물로 넣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법식에 벗어나는 것이지만, 의식을 봉행하는 스님이 신도들의 마음을 수용한 것이다. 타 종교의 성물(聖物)이 내장된 사례도 있었다. 천주교 신자였다가 불교에 귀의한 이가, 발원문과 함께 묵주를 모시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지녔기 때문이다. 발원문 내용에 "십자가 목걸이를 부처님께 바쳐 불가에 귀의함을 증명코자 합니다."라는 구절을 썼듯이, 부처님께 귀의한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담고자 한 것이다.

흥선스님은 김용사 주지로 있을 때 이러한 신도들의 마음을 반영해 불복장을 봉행하였다. 대웅전 불상에 법식대로 물목을 갖춘 뒤, 신도들에게 추가로 넣고 싶은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떠난 자식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을 넣었고, 어떤 이는 자신이 몇 년간 쓴 사경집을 넣었다. 그뿐 아니라 문경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한지 · 자수 · 도자기 등을 한 점씩 내장하여, 언젠가 불상을 열었을 때 이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타임캡슐이 되기를 바랐다.

신앙의 대상인 탑과 불상은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수나 개금을 할 때면 수백 년 전의 내장 유물들이 발견되곤 한다. 이에 탑과 불상에서 공예품을 비롯해 경전, 복식, 발원문 · 연기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될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 가운데 탑과 불상 출토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내장문화의 문화적 가치 또한 지대하다.

불복장은 더없이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대상인 불상의 내면에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담는 장치였음을 내장문화의 역사 속에서 살필 수 있었다. 탑과 불상을 조성하고 성물을 모시는 일은 결국 재가자에 의한 신앙의 문제인 것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정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❶ 일경성과 일원상

▶ **강소연 교수는** 서울 태생으로 어린 시절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지냈다. 30년 연구경력을 가진 학자로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연구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홍익대 겸임교수로 10년간 교편을 잡았다. 현재는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화엔 三身 품은 부처님이 있다

연재를 시작하며

'깨달음의 미학' 연재에서는 삶과 직결되는 수행과 그것의 회화적 표현을 소개한다.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깨달음의 현상과 내용들은 불교경전(문자)으로 쓰여졌고, 불교미술(그림)로 그려졌다. 우리나라 국보 및 보물급 미술 속 핵심 상징과 함께, '수행–경전–미술'의 삼위일체로서의 해설을 제시한다. 이 글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새해 첫날 발원해 본다.



도판①. 부처님의 이미지, 남해 용문사 〈영산회상괘불도〉의 부분, 1769년, 삼베에 채색, 세로865.5 x 가로585.0cm.



도판②. 진리의 본체인 법신(일원상 또는 여의주)과 공덕 장엄의 보신(깨달음의 빛과 신성한 에너지)과 중생제도를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나툰 응신(사람의 얼굴 모습)이 하나로 합일된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일원상을 도해했다.

도판③. 본질적인 부처님의 형상은 일원상(또는 여의주)로 표현된다. 응신의 모습을 제외하면, 법신(여의주: 만유의 본체)가 남는다. 본체인 바탕자리 여의주에서는 무수한 여의주가 계속적으로 파생되어 나온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하지 않고 몸을 풀리라. 이번 나들이(인생)보다 더 바보가 되리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도전하리라. 산에도 더 많이 오르고, 강에서 수영도 더 많이 하리라. 거친 곡물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으리라. 상상의 고통보다, 실제적 고통과 맞서리라.(후략)

–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앞부분, 돈 헤럴드(Don Herold, 1889~1966)

"상상의 고통과 실제적 고통." 괜한 마음고생으로 인생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는 어느 시인의 고백이다. 고통에는 2가지가 있다. 상상의 고통과 실제적 고통. 즉,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정신적 고통이 치성하면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꾸준한 성냄은 화병이라는 실제적 가슴 통증을 일으킨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육체적 아픔은 불안과 공포의 심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일심동체!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고통을 가중시킨다.

몸과 마음, '나'의 생성 메커니즘

몸과 마음이 서로 만나면서, 몸은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몸이 나라고 생각한다. 기다렸다는 듯, 반쪽짜리들은 서로를 '나'라고 착각하며 찰떡처럼 붙어 연명한다. 이 '나라는 착각'을 '무명(無明)'이라 한다. 무명이란 '깨달음(자각)의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과 몸이 덩어리져서 '나를 형성하는 원리'를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12연기(緣起)의 과정'으로 통찰하셨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고 하셨다. 내가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을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고통의 근원인 '나(나의 실체)'를 보라고 하신다. 그러면 왜 나를 보아야 하는가?

보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 그리고 나와 동반되는 고통도 사라진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힘(자각의 힘)을 키워, 자신을 통찰한다는 것. 그래서 자유가 된다는 것. 이는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고통 타파'와 '존재 해탈'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신 붓다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자. 붓다의 고통 타파법, 존재 해탑법은 '사마타(定 또는 止) + 위빠사나(慧 또는 觀)'의 수행이다. 간단히 그 요지를 살펴보자.

사마타와 위빠사나: 정혜쌍수, 지관겸수

사마타(선정)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대상은 무엇이든 좋다. 붓다 당시 제시된 40가지의 집중 주제가 있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티베트 · 중국 · 한국으로 전래 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주제들이 생겨났다. 이는 풍토적(風土的) 요인에 기인한다. 지역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에 이러한 풍토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에서 생겨난 선정 주제가 '화두'이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유사한 한자문화권이므로, 화두 전통의 범주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 또는 나라의 풍토에 맞게 생겨난 것인 만큼, 화두 참구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매우 잘 맞는 수행 방법이다.

화두 참구를 통한 선정 삼매는 단기간 내에 체험 가능하기에, 매우 극심한 고통 속의 사람에게 적극 추천되는 방식이다. 믿고 따를 만한 노련한 선지식의 지도에 따라 화두를 받고, 그것을 놓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 전통 속에 화두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마타 방식은 '염불'이다. 화두이건 염불이건 나옹선사의 말씀대로 "착득심두절막망(着得心頭切莫忘)" 하면 된다. 딱 집중하여 결코 놓지 않는다. 단, 이들 사마타 주제들은 초선정까지만 가능하다. 석가모니 붓다께서 말씀하신 기본 중의 기본. '호흡관찰(아나빠나사띠)'은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가능하고, 사마타와 위빠사나 두 가지를 모두 계발할 수 있다.

사마타 수행 통해 얻는 '합일 의식'
'법신과 합일' 어떻게 도상화 되나
法身은 '일원상, 여의주'로 묘사돼
보신 '광배', 응신은 사람으로 그려

사마타 수행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에, '나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개념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기에, '덩어리째' 돌파하고 '덩어리째' 벗어난다. '있다'와 '없다' 둘 중 하나다. 벗어나건 못 벗어나건, 나는 계속 '덩어리로 인식되거나 또는 인식 안되거나' 이다. 어쨌든 실존적 고통은 계속된다. '덩어리'로 인식되는 나를 (지금 현실에서) '해체'하는 방법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것이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붓다께서는 말씀하셨다. 위빠사나 수행의 16단계 중, 1단계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통해, 먼저 몸(물질)과 마음(정신)을 별개라는 사실을 통찰한다. 몸과 마음은 일심동체가 아니었다.

몸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고, 또 마음 역시 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다. 양자 모두 제각각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지만, 서로에 의지하여 생존한다. '나'라는 것은 먼저 '몸과 마음'의 2가지로 해체되고, 다시 몸은 지수화풍의 4가지로, 느낌의 12가지로, 물질의 28가지로 해체된다. 정신 역시 마음의 89가지로, 마음 부수의 52가지로 해체된다.

결국 존재란 조건(또는 요소)들의 끊임없는 이합집산이고, 그 안에 영원한 실체(나)는 없음을 본다. 붓다는 이러한 존재의 법칙과 현상을 일찍이 '연기(緣起)와 무상(無常)'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은 '무상, 고(苦), 무아(無我)'로 통찰하셨다.

법신+보신+응신=부처님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대상과 하나 된 '합일 의식'이다. 내가 아닌 게 없고, 또 따히 나인 것도 없다. 〈금강경〉의 '구경무아(究竟無我)' 또는 '심우도'의 '인우구망(人牛俱忘)'에 해당하는 '일경성(一境性)'의 상태이다. 이를 물아일체 또는 범아일여라고도 한다. 사마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하얀빛(니밋따)이 나타난다 → (계속 집중하면) 그것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사마타 수행의 특징: 세상이 선명해지고 투명하게 빛이 난다)→ 집중도가 강할수록 빛의 강도와 크기는 무한대로 세지고 또 커진다(무량광) → 처음에는 내가 빛을 (대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빛이 거꾸로 나를 대상으로 하여 순식간에 빨아들인다 → (나는 없고) 거대한 여의주가 나타난다. → 주객이 하나 되는 일경성을 체험한다.

오롯한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나(자의식)에게서 벗어나 본래의 바탕 의식과 합일하게 된다. 이것을 바탕 자리 또는 우주 의식이라고도 표현한다. 처음에는 개가 보름달을 보다가, 이제는 보름달이 개를 본다. 일체 반응하지 않는 부동(不動)의 마음, 때 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에서 세상을 관조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法身)이라고 한다.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는 용어를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법신과의 합일' 상태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지는가?

대승불교에서 불신(佛身, 깨달음의 몸체)은 삼신(三身, 세 가지 몸체)으로 정의된다. 가장 근본 자리인 본체를 법신이라 하고, 법신에서 일어나는 (수행 공덕의 과보로서의) 장엄을 보신(報身)이라 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대상에 따라 근기에 맞게 모습을 나툰 것은 응신이라 한다.

이러한 삼신의 성격을 한꺼번에 품은 부처님. 부처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묘사되는가? 법신은 '일원상(또는 여의주)'으로 묘사되고, 보신은 '광배(깨달음의 빛)와 서기(瑞氣, 신성한 에너지)'로 묘사된다. 그리고 응신은 눈코입이 있는 '사람 형상'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도판①, ②, ③)

삼신귀일(三身歸一) 또는 삼신일체(三身一體)의 원리로 '법신+보신+응신'이 통합된 형상이, 우리가 익히 아는 불교미술 속 부처님의 모습이다. 삼신 각각의 회화적 표현으로서의 '일원상(법신)+광배와 서기(보신)+사람 형상(응신)'의 모습은 하나로 중첩돼 부처님 상호로 나타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이안의 Media In Buddha ❼ 영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한줄요약
〈이상한 나라 엘리스〉는 전세-현세-내세로 나아가는 상징과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환생서사'와 맞닿는다. '환생서사'는 생을 거듭해 부처가 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경'이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생' 돌파할 '자신의 토끼' 찾아라

원래 부처란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보통명사고, 붓다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을 일컬어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깨달음이 쉽지 않다보니 모든 수행자가 아라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아라한이 다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한데 수행을 아무리 해도 붓다에 한참 못 미치는 자신이 부처가 되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조바심이 나는 수행자들도 있을 것이다.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며 이번 생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생을 거듭해 수행하면 된다고 하면 언젠가 깨달음의 아라한과를 얻게 될 터이니 위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득하기도 할 것이다.

애초에 크게 될 선재가 아닌 자기 자신은 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깨우친 붓다에 한참 못 미친다며 포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붓다 또한 이 세상에서만 수행한 것이 아니고 전생에서도 수행을 쌓았기 때문에 최후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라한이 못되어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다잡으며 수행에 정진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붓다 역시 출가하고 6년 정진해서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과거세에 삶을 거듭해 윤회전생하며 선행을 하고 수행을 거듭하고 다다른 현세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붓다는 보살이라 하는데, 이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보살은 바로 부처의 전신인 것이다.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가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보살로서 생을 거듭하는 사이에 천인으로 났다가 국왕으로도 살았다가 도둑의 삶을 살기도 했고, 심지어 코끼리, 원숭이, 공작, 물고기 등 동물로서 숱한 생을 거치며 갖가지 선행공덕을 행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 '본생경'이고 현세 이야기, 그 현세의 원인이 된 전세 이야기와 그 결과인 내세 이야기를 엮은 이야기 형식을 본생담이라고 한다.

본생담 형식은 대중에게 쉽고도 재미있게 교훈을 담는 형식이라서 불교가 인도에서 각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권의 전승을 담은 다양한 서사로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아들〉 이전부터,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온갖 환생물이 대세가 되기 이전부터도 환생 서사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고 포기하려는 대중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응원을 전하는 이야기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교훈이 너무 강조되면 따분하고, 너무 재미만 내세우면 유치한데다가, 워낙 기원전부터 널리 알려진 형식이라 어지간히 창의적이지 않으면 오래 기억될 작품으로 남기 쉽지 않다. 그러니 어린 여자 아이가 겪는 모험으로 본생담 형식을 통해 성장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고전이 된 것은 그만큼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한 장면.

고전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전세-현세-내세 상징 이야기 구조

웹툰·웹소설 '환생서사' 전성시대
생을 거듭하며 수행해 부처가 된
부처님 '본생경', 환생서사의 원조

딱 서사 구조로는 사춘기 무렵의 여자 아이가 토끼를 따라 구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전세 이야기, 구멍에 빠져 휩쓸리게 된 이상한 나라의 모험은 아이의 눈에는 당대의 정치와 문화가 사뭇 이상하고 기괴하게 비치는 현세 이야기, 그리고 구멍에서 빠져 나온 다음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내세 이야기라는 전형적 형식이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나 상황, 풀어가는 방식이 워낙 독창적이다 보니 여러 작가들이 다양한 판본의 그림책으로도 엮어내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곤 한다.

요즘이야 사람처럼 옷을 차려입은 동물을 보는 것이 낯선 모습이 아니지만 여성들이 숨도 못 쉴 만큼 코르셋으로 허리를 꼭 졸라맨 모습으로 나서야 당연하던 시대에는 그게 몹시도 기이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엘리스는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는 토끼가 신기해서 따라가다가 나무 밑에 뚫린 구멍에 빠져 '이상한 나라'로 갔더랬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이 하도 놀라워서 꿈으로 꾸고 또 꿔가며 자란 엘리스가 이제 약혼을 눈앞에 둔 아가씨가 되었다. 팀 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이 아가씨 엘리스(미아 와시코우스카)의 이야기다.

엘리스는 코르셋을 입지 않았다고 타박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귀족이라는 '스펙' 말고는 뭐 하나 맘에 들지 않는 남자의 청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미래의 시어머니가 되려는 아주머니한테 아직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닌 남자를 어찌 받들어야할 지 충고를 받는다.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죽 둘러서서 엘리스가 청혼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는 딱 그 순간, 마침 토끼가 나타났다. 조끼를 갖춰 입고 시계도 들여다보는 그 토끼. 그래서 엘리스는 다시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빠져들어 간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엘리스가 지금껏 악몽으로 기억하던 이상한 나라 '원더랜드(wonder land)'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언더랜드(under land)'란다.

어쨌든 엘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동화 원작 삽화와 똑같은 옷을 입고 떨어진 땅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몸도 작아졌다 커졌다 하고, 똑같이 이상하고 정신없는 존재들을 만나 생각지도 못한 모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존재들도, 엘리스 자신도 엘리스의 정체가 '그 엘리스'가 아니라 '다른 엘리스'라고 한다. 달라진 것은 훌쩍 자란 엘리스뿐 아니라, 원작 동화의 흑백 삽화나 예전 디즈니의 아기자기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팀 버튼 감독의 손을 거쳐 2D로 촬영된 화면이 3D 버전으로 바뀐 것까지 포함한다.

〈비틀쥬스〉, 〈가위손〉, 〈슬리피 할로우〉와 같은 작품들에서 팀 버튼 감독은 이미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규범에 숨막혀하며 소녀에서 막 어른이 되기 직전의 아가씨가 기이한 세계로부터 온 존재의 매혹적인 부름을 받고 자신이 속해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돌아보는 상황을 즐겨 만들어왔다.

그리고 팀 버튼 감독은 〈빅 피쉬〉에서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든, 〈유령 신부〉에서든, 부름을 받고 기이한 세계로 갔던 이가 거기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든 다시 자신이 속한 현실 세계로 돌아갔을 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으로 되돌리곤 했다.

그러나 기이한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며 겪었던 일들이 주인공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불행할 뻔했던 주인공은 자기 식의 행복을 선택하는 식의 결말, 그러니까 현실을 피해 악몽에 빠졌다가 다시 그 악몽을 통해 현실을 동화로 바꾸곤 했다.

어차피 동화가 원작인 탓도 있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이런 팀 버튼 식 동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엘리스가 빠져 든 이상한 나라는 '왕대그빡' 붉은 여왕(헬레나 본햄 카터)이 걸핏하면 사람들 목을 베어버리라며 무시무시한 폭정을 펼치는 세계다. 예언서에 따르자면 제대로 된 엘리스는 '좋마운(좋고 고마운, frabjous) 날'에 '날뜩한(날카롭고 섬뜩한 vorpal)' 검으로 붉은 여왕의 폭정을 뒷받침해주는 무시무시한 괴수 재버워키의 목을 베어야 한단다.

재버워키(Jabberwocky)는 〈거울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넌센스 시의 제목이다. 말장난의 귀재인 작가 루이스 캐럴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낱말들은 뜻도 발음도 워낙 독특해서 영어의 말맛을 다른 언어로 옮기기 까탈스럽기가 이루 말할 데 없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아마 가장 탁월한 것은 바로 이 말장난을 한국어로 옮긴 자막 번역일 것이다.

처음부터 3D로 기획된 〈아바타〉와 비교해서 입체감이 놀랄만한 경지는 아니라지만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솜씨가 빼어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어낸 화면이나, 엔딩 타이틀 곡을 부른 에이브릴 라빈의 뮤직 비디오보다 더 풍성하달 건 없지만 대니 엘프먼의 음악은 충분히 팀 버튼 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도 모자장수(조니 뎁)의 '으쓱쿵짝(futter-wacking) 춤'으로 엘리스의 모험을 '즐복한' 여행이 되게끔 마무리해준 것은 말과 문화가 갖는 맛을 잘 살린 한국어 자막 번역자의 공이지 싶다.

당대 최고의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감독으로 꼽히는 팀 버튼이 루이스 캐럴의 기발한 엘리스 이야기를 가지고 마구 난장판을 벌이면서도, 미국식 상업영화가 갖는 교훈적인 성장 영화의 틀에 담은 이 영화는 자신이 미친 게 아닐까 걱정하는 등장인물들에게 거듭해서 "넌 확실히 미쳤어. 하지만 멋진 사람들은 다 미쳤지"라며 지금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 원래 삶에서 극복할 일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만든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나들던 원작의 이상한 나라를 '예쁜 하얀 여왕 좋은 편, 못난 붉은 여왕 나쁜 편'으로 딱 갈라놓다보니 여왕 앞에서든 재판정에서든 하고 싶은 말 마구 쏟아내며 대들던 원작 이야기의 어린 엘리스가 영화에서는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작전을 펼치는 조심스런 아가씨가 되어 있다 보니 엉뚱하고 이상한 나라에서 서사를 돌파하는 주인공 자리는 엘리스가 아니라 모자 장수가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겪는 세상은 엘리스가 빠져들었던 이상한 나라 못지않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재벌집 막내아들〉로 환생한다고 해도 웹소설 원작에서는 복수에 성공했고 드라마에서는 전생을 뉘우쳐 스스로를 구원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제대로 살아남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드라마가 원작 소설과 다른 결말 때문에 맥 빠진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생을 거듭하며 다다른 결말이 썩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 가장 대세인 대중문화로 꼽히는 웹소설과 웹툰은 롤플레잉 게임, 중세 궁정 기사물, 아이돌 데뷔, 기업 경영 등등 온갖 장르가 다 환생스토리이다. 현재가 힘들수록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생이야기는 더 솔깃하기 때문일 것이다.

환생서사에서는 거기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돌파하고, 무엇을 되풀이하지 않는 가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된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오래 남는 고전도 나오게 될 것이다. 붓다조차 그토록 여러 생을 거치고서야 깨달음을 얻었다는 본생경에서 힘을 얻듯이, 지금의 대중들은 다양한 환생스토리에서 위안을 얻고 있을 것이다.

2023년은 토끼해, 모두들 이번 생을 돌파할 각자의 토끼를 찾아 '이번 생'에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뤄내시기를.

〈영화평론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외도의 주문에 걸려든 '아난'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② 마등가녀의 주문

〈원문〉 "그 때 아난이 탁발을 나가 음실(婬室) 옆을 지나다가 환술(幻術)을 하는 마등가녀(摩登伽女)를 만났다. 마등가녀가 사비가라선범천주(娑毗迦羅先梵天呪)로써 아난을 음실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음탕한 몸으로 아난을 어루만지며 파계(破戒)시키려 하였다.

이 때 바사닉왕이 부왕의 기일(忌日)에 재를 베풀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궁궐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다. 궁궐에 가서 공양을 마친 뒤 부처님이 아난이 마등가녀에게 붙들린 것을 알았다. 부처님은 궁중에서 하시려던 설법을 생략하고 서둘러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정수리에서 백보무외광명(百寶無畏光明)을 놓았다. 그 광명 속에서 꽃잎이 천 개나 되는 보배 연꽃이 생기고 그 속에 부처님의 화신(化身)이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신주(神呪)를 설하셨다. 그리고 문수사리를 시켜 주(呪)를 가지고 가 아난을 구해오게 하였다. 문수가 음실에 도착하자 마등가녀의 악주(惡呪)가 소멸되고, 아난과 마등가녀를 데리고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아난이 부처님을 뵙고 절을 하고 슬피 울면서 자신이 다문(多聞)만 하고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시방여래께서 보리를 이룬 미묘한 사마타(奢摩他)와 삼마(三摩) 선나(禪那)의 최초 방편을 은근히 청하였다."

〈강해〉 경전의 설법이 어떤 동기에서 설해졌는가 하는 것을 교기인연(敎起因緣)이라 한다. 〈능엄경〉의 교기인연(敎起因緣)은 탁발(托鉢)을 나갔던 아난이 돌아오다 마등가녀의 주문에 걸려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비가라선범천주'라는 외도의 주문에 아난이 끌려들어 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비록 외도의 주문이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위력이 있음을 넌지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는 7권에 설해져 있는 능엄신주의 위력과 공덕이 수승함을 알게 하는 예비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능엄경〉 안에 내재된 밀교적 요소를 은연중에 드러낸 단면이기도 하다. 아난이 음실에 끌려 들어가 사문의 위의를 잃고 파계하게 될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 마등가녀는 모녀 두 사람을 말한다. 마등가라는 말은 인도의 천한 신분이었던 매음(賣淫)을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길을 가는 아난을 보고 그 용모에 반한 딸이 어머니에게 아난을 집으로 불러들여달라 떼를 써서 어머니가 사람을 홀리는 주문을 외우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마등가경〉이라는 별도의 경전에서도 나와 있다. 아난은 용모가 수려하여 부처님과 매우 닮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20상을 아난도 갖추었다는 설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출신으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또 친형이 교단에 반역을 꾀했던 데바닷타였다고 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 경전을 결집할 때 아난이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500비구 대중 앞에서 모두 외워내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난을 경가(經家)라고도 한다. 이런 아난이 바사닉왕의 공양 청에 가지 않고 별도의 청을 받아 나갔다가 외도의 주문에 걸려 위험한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때 바사닉왕의 청을 받아 궁중에 가계시던 부처님이 급히 절로 돌아와 문수보살을 보내 아난을 속히 데려오게 한다. 부처님 앞으로 돌아온 아난은 자신의 수행이 온전치 못함을 부끄러워한다. 부처님을 곁에서 모셨던 아난은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제자로 알려져 부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행의 내공(內功)이 부족하여 외도의 주문에 걸려들었다고 자책을 한 것이다. 문수가 아난을 데려오자 부처님이 아난에게 출가 동기를 묻는다. 이 대목에서 〈능엄경〉 설법의 실마리가 풀린다. 이에 아난이 부처님의 상호가 뛰어남을 보고 출가하였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다시 무엇으로 보았느냐고 묻고 아난은 눈과 마음으로 보았다고 대답한다. 이에 부처님은 눈은 네 얼굴에 있지마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고 묻는다. 여기에서 1권의 대의인 '칠처징심(七處徵心)'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무량의삼매' 첫 조건은 12번째 본제관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② 무량의삼매

〈무량의경〉에서는 '무량의삼매'로써 등각도를 이룬다고 하셨다. 무량의삼매란 본성의 간극(寂滅相)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껴안고(大寂靜, 공여래장) 불공여래장과 일체를 이룬 것을 말한다. 무량의삼매는 두 가지 목적과 두 가지 방편을 통해 성취된다. 두 가지 목적이란 각성의 무명적 습성과 생멸심을 제도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편이란 본제관(本際觀)과 자비관(慈悲觀)이다. 본제관을 통해서는 대적정을 증득하고 자비관을 통해서는 대자비를 성취한다. 대적정을 증득하기까지 본제관이 행해지는 절차가 있다.

견성오도 이전의 본제관과 견성오도 이후의 본제관이 그것이다. 견성오도 이전의 본제관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견성오도 이후의 본제관도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견성오도 이전에 행해지는 본제관이다. 머리가 가슴을 내려다본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머릿속의 텅 비워진 감각과 가슴의 편안한 자리가 서로를 비추어본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피질 경로에 무념주가 세워지고 중심에 이면이 세워져서 서로를 비춰본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피질 경로에 세워진 무념주의 바탕에서 텅 빈 자리를 인식하고 중심의 이면과 서로를 비춰본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중심의 철벽과 피질 경로에 세워진 무념주가 서로를 마주본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피질 경로의 무념주가 중극까지 내려오고 그 바탕에서 아무렇지 않은 자리를 인식한다. 그런 다음 철벽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텅 빈 공간과 서로 마주 보게 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여섯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 견성오도이다.

머릿골 속에 세워진 여섯 번째 무념처와 가슴 바탕에 세워진 여섯 번째 무심처가 서로를 그리워하게 한다. 그런 다음 무념 무심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갖추어진 본성이 행, 주, 좌, 와, 어, 묵, 동, 정(行,住,坐,臥,語,默,動,靜)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불응 색,성,향,미,촉,법(不應 色,聲,香,味,觸,法)하고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以生其心)한다. 이 과정이 금강해탈도이다. 이것이 일곱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본성의 틈을 벌려 무념 무심 간극을 인식한다.

그런 다음 간극에 머물러서 밝은 성품의 기쁨을 인식한다. 이때가 본각이 성취된 때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무를 줄 알면 조사문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초입반야의 과정이다. 여덟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끌어안는다. 그런 다음 그 상태에 머무른다. 이 상태가 바로 멸진정이다. 아홉 번째 본제관이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이 과정을 증득한 사람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마주 보게 하고 밝은 성품의 기쁨을 누린다.

그런 다음 간극으로 법신행을 하고 무념으로 보신행을 하며 무심으로 화신행을 한다. 이 상태가 보살도의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혜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혜지의 과정이다. 열번째 본제관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밝은 성품을 무한하게 확장시킨다. 밝은 성품이 생멸문 전체를 감싸면 그 상태에 머물러서 생멸문을 관조한다. 이 과정이 보살도 법운지의 과정이다. 열한 번째 본제관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껴안고 밝은 성품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오로지 본성의 적멸상에 머무른다. 이 상태가 대적정의 상태이다. 열두 번째 본제관이다. 열두 번째 본제관에 들어가면 무량의삼매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② 질문의 어리석음(下)

마음 관찰하는 한 가지가 모든 수행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뵙고 밖으로 나가려하니 바깥이 어두워 용담 스님께 "바깥이 깜깜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용담 스님은 촛불을 건네주다 덕산 스님이 받으려 할 때, 촛불을 꺼버렸다. 그때 덕산 스님은 계합했다. 덕산 스님은 화두를 들지 않았는데 무엇을 타파한 것이 있어 용담 스님에게 절을 한 것인가? 수행자들은 깊이 있게 참구해보아야 한다.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일관성 없게, 아만과 교만으로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보라.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뛰어넘은 줄 알고 했던 말들이 하루아침에 부질없이 사라질 일장춘몽 같은 어리석음인 줄 알아야 한다. 덕산 스님의 화두는 찰나에 들고 찰나에 버려졌다. "바깥이 깜깜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화두가 어디 있었겠는가. '촛불을 꺼버렸다.' 용담 스님이 무언의 답으로 덕산 스님의 알을 깨버렸다.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다.

많은 선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놓은 말씀의 내용에서 틀린 것은 없지만 본인들의 의심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수행자에게 의심에 생겼다고 해서 다 같이 의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별심이 화두의 의문이지만 그 것이 실답게 들리지 않을 뿐이다. 그 중에 가장 실답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화두가 된다. 그 다음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는 달마 스님께서 가장 잘 말씀해놓으셨다.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가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觀心一法 總攝諸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마음 안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일으킨 마음이 경계에 나타난 분별심 때문임을 알게 된다. 그 허망한 분별심이 오랜 세월 미혹으로 살아온 사대오온임이 분명해지면, 그 사대오온은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를 더 이상 사량분별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미혹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 미혹에 대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없어진 마음이 스스로다. 여기까지 듣고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자신의 '행주좌와어묵동정'에 화두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와 닿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움직이면 사실 그대로이지만,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화두가 된다.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일을 보자. 농부는 겨울이 오면, 내년 가을에 수확해야 할 과일을 염두에 두고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의 수를 조절해야 하고, 병충해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농부의 일이다. 여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다.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가지는 두고 어떤 가지는 제거해야 하고, 열매의 품질을 조절하기 위해 어떤 꽃은 두고 어떤 꽃은 제거하고,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해충을 막아야 한다. 이때 그 골라내는 마음이 무슨 마음에서 나온 마음인지를 가만히 보는 일이 화두이고, 그것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 의정이다.

오온의 분별심에서 끊어짐 없이 의정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오롯이 저절로 들리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의심처이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오온과 무관하게 화두는 들려있고, 동정(動靜)에 상관없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때부터 오온을 여읜 가벼움이 생겨나고 화두는 화두대로, 오온은 오온대로, 서로 부딪치는 것이 줄어든다. 각자의 일이 다름을 받아들이니 소리와 형상에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잦아들게 된다. 이때가 되면 거의 다다른 것 같지만 아직 잔재가 남아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엇'으로서 걸어온 길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마저 버려져야 다시는 모양과 소리로는 말함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9호 | 17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선불사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감천면 감천면사무소에서 200m
- 대지 : 70평
- 법당, 요사채(임법당) 각각 1동
- 가액 : 5천만원

010-6243-16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청주시청 앞 9층 건물, 7층 10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80만원 최고의 시설, 몸만 들어오시면 됨
- 대웅전 40평, 종무실 20평, 산신각 4평
- 주방 10평, 스님방 25평, 전체생광석 찜질방 대형 남녀화장실 비구니 스님께만 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양평 전원주택지 및 선원자리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331-24번지 일대 (100평, 200평, 360평 등 평수 다양)
- 특징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진입도로 포장 완료, 토목공사 완료, 전망 및 조망 매우 좋음(평당 70만원)
- 참선(명상)자리 : 약 2500평 (계획관리+보존임야)
- 특징 : 개인 수행 정진하기 좋고 조용함, 필요시 인 · 허가 가능(매수자가 비용 부담) 향후 투자성 A급 평당 15만원, 계획관리 약 1400평 나머지 보존임야

010-2215-36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 합천호수 아래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옛굿당)이 옆에 있습니다.

- 대지 : 410평, 임야 217평
- 요사채 52평, 법당 16평 가건물
- 가액 : 3억 2천만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찰·암자 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앞산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3억 5천만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산림청 매각대금으로 잔금 완납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 돌탑을 쌓을 수 있는 옥돌 수천톤 산재 보존

010-9647-0723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찰 양도하실 분

희망 매수가 : 5억 ~ 10억 내외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상수도, 심야보일러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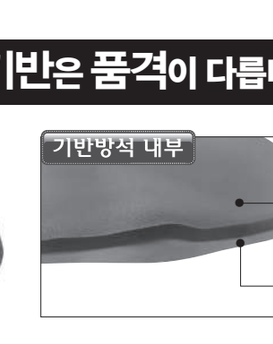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19호 | 18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화엄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육효 강의

4개월 완성
비구 비구니스님(비법전수)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054-972-1080
010-2622-434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바라, 피리,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광복사 결혼상담소

짝을 만나 행복을
은평구 수색로 22길 20
010-5624-1365
02-306-7988

세종 명리심리 철학원

사주, 신년운세, 궁합, 택일, 작명
자녀진로, 적성, 진학, 취업, 진로
010-6593-2953
문자, 카톡 상담 환영합니다
톡상담 ID : sejong77

불상제작(용품) 전문점

(오래된) 불기, 불서 고가매입
법당철거, 법당제작, 탱화, 동북, 개금
-사찰 사고 팝니다-
010-9177-7842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메주 청국장 판매합니다

스님께서 주문하시면
10% 할인 해드립니다.
010-2089-4143
010-9692-5775
약사사 공덕화 보살

능 가 사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강화군)
010-5301-8613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1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①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마음속에 부처님 모시는 한 해 되세요

한 해의 시작입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모든 불자님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지난해에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 올해에도 그냥 사는 대로 그냥저냥 살지 뭐, 허 허 허.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닌 듯싶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부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부처님법대로 한 번 살아보자는 뜻으로, 일체(一切)와 유심(唯心)의 자세는 어떨까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루에 한 가지씩 목표를 정하여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보리라는 다짐과 함께 부처님과 동행하는 삶, 진정 멋있고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있지요?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네 삶의 매일 매일이 작심삼일일망정 마음 단단히 먹고 해보고 또 해보면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의 미소 지음이 각자의 모습을 바꾸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 아닐까요?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㉔ 유강희의 '여승—귀신사에서'

삼세인과, 부용화는 누구의 환생일까?

여승—귀신사에서 / 유강희

이승의 빛과 저승의 빛을 한데 섞으면
저런 빛일까
처연하게 아름다운 빛
나는 순간 합장을 하고
여승은 조용히 그 꽃을 가리켰다
그 꽃은 부용화였다
함박 비를 맞고 있었다
유난히 파르란 여승의 머리에선
범부채 내음이 났다
빗방울보다 가벼운 가사가 소복이 여승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나는 외려 몸이 굳어지고 입은 굳게 닫혀진 채 그 무엇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걸 느꼈다
나는 그저 여승의 발부리 앞에 엎드려 누님이라고 단 한 번만 불러보고 싶었다
어린애처럼 소리없이 울먹여보고 싶었다
여승은 절의 오래된 내력과 생의 덧없음에 대해 아직도 선 채 말하고 있었지만
내게는 잔잔한 미소로만 들리었다
오늘은 칠월 칠석날 대적광전에선 법회가 끝나고 모두들 점심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승은 극구 공양을 하고 가라 했지만 난 쫓기듯 그곳을 떠나왔다

내 전생의 누님 같은 여승은 꼭 부용화를 닮아 있었다

–유강희 시집 〈오리막〉문학동네, 2005–

실제 주인공 생생히 표현한 詩
주인공, 설화 속 부용화로 비유

거, 참, 묘하다. "비구니" 하면, (별로) 감정의 파동이 없다. 그런데 "여승" 하면, 눈물이 마렵다. 왜 그럴까. 필자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비구니(比丘尼)'나 '여승(女僧)'이나 '여자 승려'를 가리키는 것은 매한가지.

그런데 음색(音色)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가령, 이 시의 제목을 '여승'이 아닌 '비구니'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자. 시의 맛도 맛이려니와 해석과 분석과 인식의 맛도 전혀 다르다.

이유를 더듬어본다. 필자에겐 세 갈래의 '여승'이 있다. 백석의 '여승'과 송수권의 '여승'과 유강희의 '여승'이다.

언젠가 필자는 본 연재를 통해 이 세 시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다(백석의 〈여승〉을 소개할 때다). 그때 필자는 말했다. 세 시가 (맛이)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르다고. 또한, (분위기가) 전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고(그 분석은 아직도 유효하다). 필자가 그렇게 느끼는 데는 연원이 있다.

어릴 적이다. 어느 겨울날, 외할머니가 막내딸 집에 오셨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긴긴 동지 섣달 밤을 이야기로 지샜다. 필자도 귀를 쫑긋하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막둥아, 너 방죽골 신동댁 알지야. 그 여편네가 중 되어부렀어야."

"오메, 엄니. 그럼 애들은 어쩌고요?"

"큰집에 데려다놓고 가버렸다고 허드라. 모진 년."

그러면서 외할머니는, 신동댁이 바람나서 나가버린 남편을 8년이나 기다리다, 순창 강천사로 가 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그때 필자는 여자도 출가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로부터 20년 뒤, 필자는 백석 시인의 '여승'을 읽고 깜짝 놀랐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주고받으셨던 어릴 적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 내용이 흡사했던 것이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놀랍다.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후 '여승'은 필자의 의식 속에 또 다른 무의식으로 고여 있었다. 백석의 '여승'을 읽으면서는 눈물이 나왔고, 송수권의 '여승'을 읽으면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유강희의 '여승'을 읽으면서는 '내 누나' 같은 생각에 설움이 복받쳤기 때문이다. 불교에 삼세인과(三世因果)라는 것이 있다. 과거 · 현재 · 미래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 과거에 지었던 업을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를 받고, 현재 짓는 업을 원인으로 미래의 과보를 받는다는 불교의 핵심교리다. 그런 점에서 백석의 '여승'은 모성(과거, 전생)으로, 송수권의 '여승'은 누나(현재)로, 유강희의 '여승'은 이상(미래)으로 필자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다.

사실 필자는 유강희 시인이 모델로 삼은 귀신사(歸信寺)의 여승과 잘 아는 사이다. 필자의 스승인 용타 스님(경남 함양 행복마을 이사장)의 친여동생(무여 스님)이다. 출가 전에 필자는 귀신사를 자주 찾았고, 무여 스님과도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그 스님을 모델로 유 시인이 이 시를 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미련하게도 필자는, 무여 스님을 모델로 시를 쓴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기 때문이다).

유강희 시인의 '여승'은 무여 스님의 모습을 매우 생생히, 그리고 가감 없이 잘 그려내고 있다. 시를 읽어 내려가면, (그때) 무여 스님의 모습과 눈빛과 웃음과 목소리를 진짜로 (다시) 보고 듣는 것 같다. 유강희 시인의 여리고 순수하고 부끄럼 많은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유강희 시인은 하고 많은 꽃 중에 무여 스님을 왜 '부용화'로 비유했을까. 설화에 의하면 부용화는 비를 맞으면 한층 더 예쁘게 보인다고 한다(그것까지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유 시인은 실제로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삼았다). 부용은 또 용모뿐만 아니라 시(詩)에도 뛰어났던 성천(成川) 기생 연화(蓮花)의 별명이었다고도 한다.

야사 하나 더. 부용은 미모가 참으로 출중해 고을 원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죽은 신라 때 부용 설화와, 실화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지어진 〈부용상사곡〉이라는 고대소설 속의 기생 이름이기도 하다(필자의 불손한 생각을 용서해주시길. 상상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므로. 실제로 무여 스님은 상당한 미인이다).

유강희 시인과 대학 동아리 시절이 생각난다. 키가 조그만 유강희 시인은 언제나 없었다. 그러나 언제나 있었다. "극구 공양을 하고 가라 했지만" "쫓기듯 그곳을 떠나"온 그 모습처럼. 얼마 전 (30여 년 만에) 유강희 시인을 만났을 때, 유 시인이 필자에게 처음으로 "스님"이라고 부른 뒤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 가던 모습이 떠오른다. 겨울이 겨울을 입었는가. 필자도 그날 눈이 몹시 매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세균성 급성폐렴에 내몰린 미얀마 가장의 꿈

가난 대물림 끊고자 한국 찾은 미얀마 이주노동자 타원씨
폐렴에 장기까지 세균 감염돼 신장 투석…치료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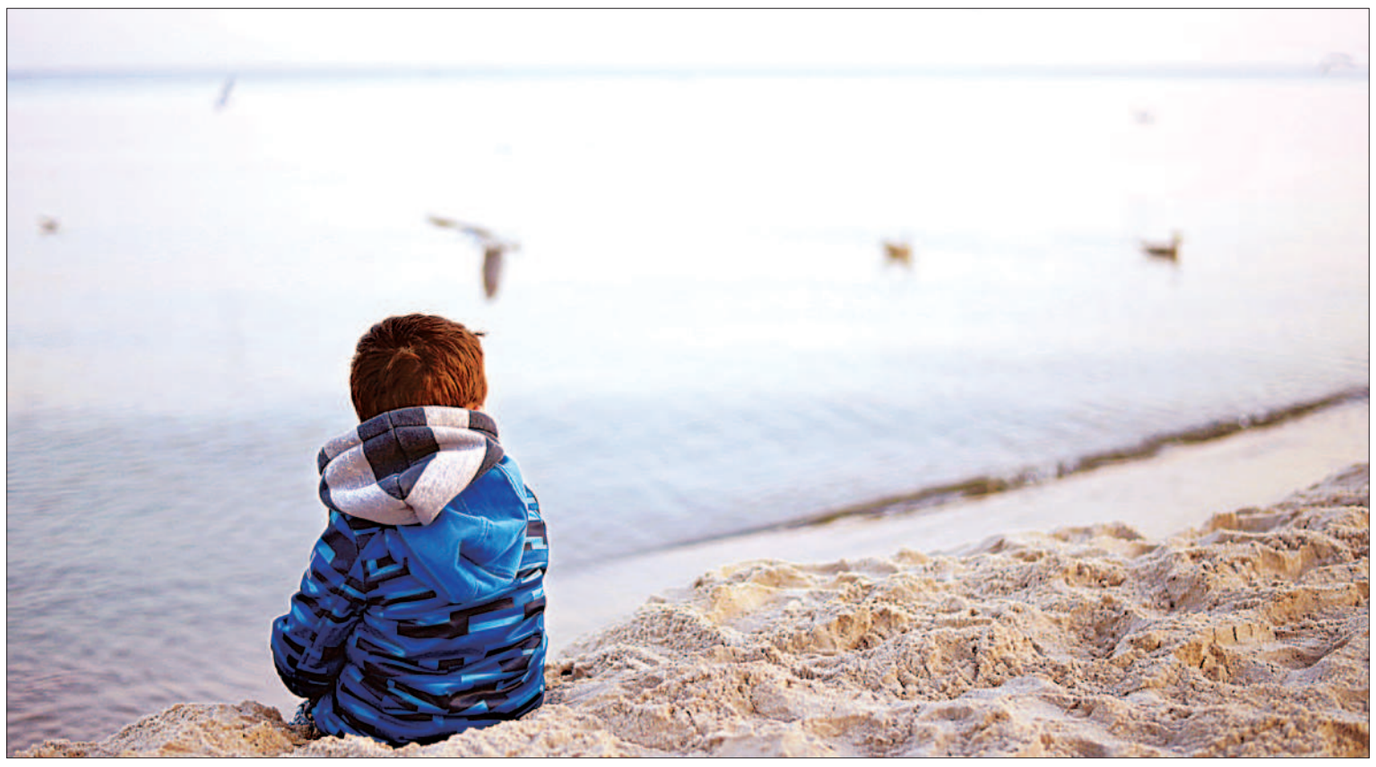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❶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 한줄 요약
삶의 고통은 성찰의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육신의 병은 '하심'의 기회



나는 원래가 좀 유별난 인간이다. 그리나 정신이 항상 살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항상 당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일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그때의 어린 내 아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깡패기도'를 해왔던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를 다 기울여 살아가는데 눈치를 볼 일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똑바로 서서 앞을 향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눈치를 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외롭고도 못된 나에게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의 착한 학생이 되어서 고분고분해져 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 나무 석가모니불!

합병증까지 겹친 나는 여섯 개의 병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병으로 쓰러진 것은 스물여덟 살 때, 신경성 위경련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죽는 줄 알고 지내왔었는데 서른아홉에는 신경성 당뇨병 환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왔으니, 병과 함께 지내온 지가 정말로 오래되어 이제는 친구처럼 함께 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서로가 의식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조용하게 잘 지내가고 있다.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내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런 삶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마음가짐과 방법을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털어 놓는 것은, 그분들도 하루속히 툭툭 털고 일어나라는 나의 진심 어린 기원에서다.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이나 책을 볼 때 미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기나 고민하지 말기를, 그냥 잘 못 알아차리는 대로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또 다시 세 번을 읽으라고 권한다. 아는 듯 모르는 듯하면서 알아지는 그 마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아주 조금씩 알게 되며 기쁨도 솔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평생 길게 꾸준히 공부하겠다는 스스로의 마음 다짐이다.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발 한발 가다 보면 그 뜻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고 마음자리도 잡혀가면서 안팎으로 고요한 평안이 자리잡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분석해 보라고 권한다.

어떤 때는 뒷목이 화끈해질 때도 있지만, 남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서 반성하는 것, 이 것이 나를, 나의 영혼을 개발시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뒷목이 화끈해지는 것은 양심의 소리다. 그때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후딱 지나가고 다른 생각이 뒤를 잇는데, 바로 이때 그 생각을 놓치면 절대 안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때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제일 중요한 기회인 것이니, 이때 뒷목이 화끈해지는 그 문제를 꼭 잡아쥐고 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생각을 돌려보아 가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자기의식 속에 들어가게 된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 가는 것이 마음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 가다보면 저절로 이것도 저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것은 분명한 나의 경험에서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나,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했다.

비록 정신없이 앓고 지내기는 했지만, 세상에 아쉬운 소리를 내본 적이 없고, 언제나 반듯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무척 착하고 성실했었다는 것과 나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 것은 정말로 커다란 은혜이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나는 나의 병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처럼 아픔이 많고 가슴에 멍이 깊이 들어서 숨쉬기도 힘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번쩍 눈이 떠지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뿐이다.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려면 무엇보다 평생 함께 가야하는 이 육신의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뜻이 높고 의지가 굳다 하여도 몸에 중병이 들면 마음껏 공부를 이어가기가 정말로 힘이들고, 또한 시들어 가는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는 밝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정신이 맑고 육체가 반듯해야 올바른 생각이 들고, 이 올바른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서 죽기 전까지 마음공부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병든 자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법은 없다. 그럴수는 없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병든 육체에 나 자신을 몽땅 다 내맡겨 전전긍긍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는 나로서 정신만이라도 반듯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병든 몸과 달리 마음으로라도 자유와 평화를 찾아야 한다.

인생 성찰, 육신 아픔서 시작
병마가 정진의 방해는 되지만
마음공부의 또다른 기회 제공

앓고 누워 지내는 몸으로 불교공부를 해나가려면,

첫째 병든 육신을 바라보면서 서글픔을 털어내고 스스로 나 자신의 정신을 굳세게 잡아 일으켜야 한다.

둘째 병에 걸려 이렇게 되기까지 겪은 여러 어려웠던 상황이나 주위 사람에 대한 분하거나 억울하다는 마음을 지워버려야 한다.

셋째 당장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죽음에 대해 갖게 되는 두려움을 잊어버려야 한다. 죽음이란 것은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면 누구나 피할수 없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죽는 다는 것을 보편타당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죽음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오래전 내가 처음 병이 들었을 때 불쌍하다고 위로해주고 약을 사들고 병문안을 오던,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를 나는 몇 번이나 보았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돌아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다.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오늘 죽을 듯 내일 죽을 듯 앓고 누워 지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반 이상, 사십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

오랜 세월을 병과 지내다 보니 처음 발병했을 때의 분노와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게 심한 고통을 주는 병들이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여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온 병이 인과,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로 온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게 되었으며, 이렇게 병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르침으로 병으로서 마음을 밝히고 닦은 과정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내 팔십 평생의 환경은 병이니, 병을 통해서 고통을 알았고,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 부처님을 만나 믿고 따라가게 되었으니, 만약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또한 병을 통해서다. 이처럼 눈치를 채고 보니 나는 병의 진행에 맞추어 그냥 천연스러운 마음과 자세로 오늘을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처지를 냉정하게 알고 분수를 지켜 나갈 수 있다면 내게 꽉 달라붙은 병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해도 그렇게 원망은 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때는 병이 들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린 듯 매일 매일을 천연스레 지내고 있다. 그 것은 병과 내가 몇십년 동안을 함께 살다보니 저도 나를 알겠지만 나 역시 병의 심술부리는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흐름에 맞추어 적당히 달래면 병의 고통이 지나갈 줄을 알고 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가슴을 멍들게 했던 그 많은 억울한 사건들과 지금 이렇게 병들어 쓰러지게 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사이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다. 그리고 나는 지금 팔십먹은 병든 노인이라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한 발자국도 비켜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싫건 좋건 간에 나는 이 현실과 함께 꼭 붙어 있어 내 마음대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고개도 돌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는 명확한 진리, 그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내가 씨앗을 뿌려 만든 업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손을 대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나, 내가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지금의 업일 뿐이다. 병원도 있고 의료시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방법이다.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우선 내가 내 마음을 잡고 움직여야 하고, 나 스스로가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것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주어진 나의 숙제로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해보는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다 털어내고 냉정하고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건강해서 펄펄 뛰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부처님의 소리가 내 속으로 깊이 다가온다. 이런 실제를 알기 전에 그 무서웠던 고통 또한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병들어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현실, 거기에는 인간적인 희망이라든가 미래라는 것에 대한 모든 의욕이 다 꺼져버려 자신이 마치 뒷마당에 버려진 낡은 인형과 같은 기분이다. 타의에 의해서 버려진 듯 텅 빈 마음이 외로움과 허무함에 서글프다. 주위와 세상이 그대로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주공간처럼 마치 백치가 되거나 바보가 된 듯이 그저 멍하다. 죽을병에 걸려있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는 기대해 볼 것도 바랄 것도 없게 되었을 때의 심정은 '나라는 존재를 어디다 세우면 좋을까?' 였다. 전생에 좋은 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절박한 때 부처님의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곧바로 가슴속에 들려올 수 있다. 고통을 거치지 않고 깨달음을 찾기란 너무도 염치 없는 바람이다. 깊은 병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준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부처님 법으로는 하심인 것이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 실망은 내가 나를 내동댕이쳐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다.내 마음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마음으로 나를 타일러 바르게 경책해야 한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본방을 놓친 그대에게..

더욱 기억하기 쉬운 방송시간!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2023년 1월 2일 부터)

본방송 당일 재방송!! 그래도 못 보셨다면 주말 찬스!!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2:30



철학자 강신주의 중국 선종 무문관의 화두 이야기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 토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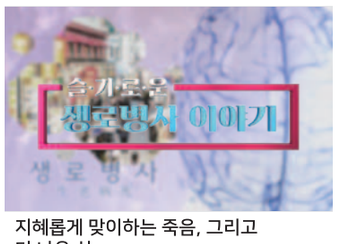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 일 14:00



지혜롭게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더 나은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BTN불교TV 최고인기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22:00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1:00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에 대해

질문 요새 유튜브의 대행 스님 법문을 통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라 하시는데 그 뜻이 딱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과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주인공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동한, 움죽거리지 않고 능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나의 근본 자체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을 선장이라 한다면 내 영혼은 부선장이 되죠,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선장에 의해서 부선장이, 지금 여러분이 다 부선장입니다, 허허허.

"위로는 선장을 믿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가거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위로는 선장을 쥐고 아래로는 중생의 팔을 쥐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맷돌을 굴리는데, 그 맷돌 심봉이 구르지도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맷돌을 돌아가게 하는 힘의 배출구란 말입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안 계시다면 댁은 지금 송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것도 자기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천차만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놈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작용하고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그냥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만 알면, 외부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되죠. 사대 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하느니라. 너부터 알아야 큰 공덕이 되지, 너를 네가 모르고는 절대 공덕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공덕이란 뜻은,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나 하나가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에 비로소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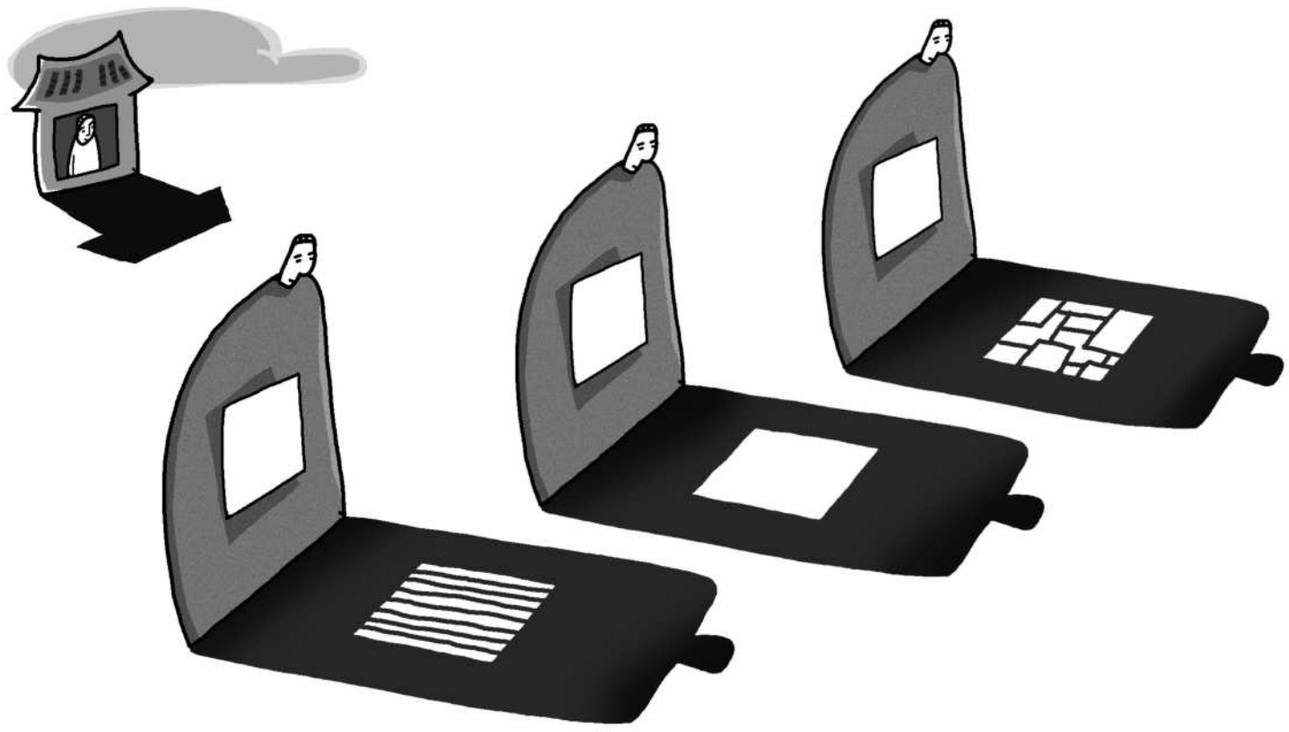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질문 반야심경에서도 "우리 함께 어서어서 벗어나세" 했는데, 정말 저도 제 마음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관하면서 주인공에 맡겨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제 마음에 속고 맙니다. 제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에 누구나가 다,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난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형성시켜서 났으니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깥의 형상을 보고 남에 참견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닿는 일은 모든 것을 나한테,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한테 말할 게 아니라 바로 내공에다가 믿고 놓고, 거기에서 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뿐이겠습니까. 생활이 불교고 불교가 생활이고 또는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인지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하는 데에 어디에 역점을 둬야 하느냐. 생활이라면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공중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고 사람이 우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이 전체가 상응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허가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지마는 우리가 보이는 데보다도 더 역력하고 더 세밀하고…, 쌀 한 토막 에누리가 없는 이 법은 아주 엄중하고 엄중합니다.

그러니 얼른 생각할 때에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지마는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생활에서도 하나하나 말을 하지 않고 한 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생각이 벌써 건너고 나면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어서 내 몸뚱이 움죽거려서 거길 갔을 때에는 이미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다 같아지니 이 육신도 같이 참 좋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 법이 일상생활에 쓰여진다는 것을 역력히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시대가 공중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공중으로 어떠한 혹성의 타격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세균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공해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에 공해도 없을 것이요, 한 생각에 공해도 있을 것이요, 있다 없다, 한다 안 한다를 한 생각에…, 내 한 생각이라면 그렇게 법이 돼서 그대로 정돈이 될 때에 바로 내 이 살림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우리가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작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작용법을 바로 여러분이 다 섬세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바로 그것이 화두가 되고 그것이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를 만들 수 있는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생각을 내는 것도 생명의 불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에서 자꾸 찾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비교해서 한 번 말씀드리죠. 줄창 내가 얘기하지만 작년 콩씨를 올해 심어서 콩 싹이 났습니다. 콩 싹이 자라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는 자기 콩나무에서 콩씨가 열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작년에 심은 그 콩씨를 찾는 겁니다. 내가 나기 이전을 찾으라니까 그만 바깥에서, 작년에 밭에 심었던 그 콩씨를 찾느라고 헤매고 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코를 꽁꽁 막고선 냄새를 맡으려고 해 보십시오, 냄새 맡아지나. 혀를 끊고서 말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진가를 맛보았어도 맛본 그것을 또 안으로 굴려서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말 할 필요가 없이 안으로 굴리고 굴려서 또 지혜를 넓히고….

지혜를 넓혀서 또 온 바다를 만드는 거와 같이 내 마음이 온 누리 어느 곳곳에 닿지 않는 데가 없이 됐을 때에,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게끔 됐을 때에 일체 만물, 무정물이나 모든 생물, 물에 있는 고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저런 풀잎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풀잎들이 다 말을 해 주고 '이것은 당신의 약이 되

☞ 22면으로 계속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다

☞ 21면에서 계속

는 거’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합디다.

여러분은 꼭 먹을 걸 짊어져야만이 산에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그거와는 다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도야지처럼 이 세상에 났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굶겨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입니다. 맨몸뚱이로 산에 올라갔어도 맨몸뚱이로 그렇게 올라갔다면 ‘허허, 이거는 먹을 궁리를 안 하고 올라왔으니 먹여 줘야지.’ 허허허, 그래서 그 풀잎과 풀잎이 다 같이 동일하게 되니까 먹을 것을 스스로서 갖다가 주더라 이겁니다. 왜 갖다 주느냐. 내가 움죽거리는 대로 먹을 게 있어! 그러면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생식을 한다고 쌀을 물에다 불려 가지고 한 주발씩 먹는 것도 봤습니다. 차라리 밥을 해 먹지 뭣 때문에 물에다 담갔다 한 주발씩 먹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보통 여러분과 같이 그냥 먹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늘에서 알고 땅에서 알고 법계에서 안다는 얘깁니다. 거짓이 한 치라도 있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한 치라도 있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 속임을 받는 것도 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쇠를 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공이라는 이름 아닌 주인공이 하늘, 우주 전체를 싸고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못 보 시걸랑은 현실을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빚을 얻어서 어떠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익이 남아서 들어올 것만 알았지 빚져서 이자와 더불어 같이 나가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것째 그만 잃어버려서 탕진을 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분수를 알맞게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두들겨 가면서 걷는다면 아마 천둥 벼락을 내려도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보통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좀 없애고 그냥 살겠지.’ 그러지만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걸 발견을 못 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세균, 영계, 윤회, 생사, 유령, 업보에 끄달리면서 살아나가니까 그 고달픔은 말도 못 합니다. 거기에서 나 하나만 몰락 벗어난다면 그 외의 것은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공해서, 벗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지어서 속는 것이고 그게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누가 모든 걸 망하게 했고 누가 흥하게 했고 누가 웃게 했고 누가 울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공덕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있든 없든 성의껏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미래의 덕을 쌓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현실의 공부를 할 때 영원한 오늘,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 하나도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가 어려운가 하면은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가 하면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가다 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요.

답변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만행입니다. 그대로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 가는 그 행이,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즉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六道萬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도윤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하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끊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매이지 말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서 발 하나 하나 디뎌 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늘, 어찌 한 발짝 떼어 놓고 또 한 발짝 떼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고 매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아까 차를 한잔 주는데 아주 뜨거웠어요. 법회에 올라가긴 해야겠고 그거를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걸랑은 데워 먹고 뜨겁걸랑은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眞法)이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해서 나투면서 찰나찰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입니다. 윤회인 까닭에 그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공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공했느니라.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꼬집어서 내세워서 나라고 할 게 없느니라. 안과 밖이 다 그러니라. 안에도 내 집안의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인 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엔 사람이 들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공하고 없다. 내세울 게 없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세울 게 없다. 세울 게 없는데 무엇에 매이고 무엇에 끄달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느니라. 살면서 모두 그 이름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만행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라면, 이것 보세요. 뜨거운 물을 억지로 식히려고, 금방 먹기 위해서 막 식히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저절로 그냥 식기도 하고, 정히 급하면 찬물에다 띄워서 식혀서 먹어라. 재간대로 해라. 재간대로 하는 반면에 데워서 먹고 식혀서 먹어라. 매사의 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재간껏 식혀 먹고 데워 먹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넉넉히 그냥 놔두면 식어요. 때가 되면 그냥 먹게 돼. 급한 거는 빨리 식혀서 먹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관습에 의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삶에 대해서 어지럽고 괴롭고 그렇지,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불교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신다면 바다를 삼킬 수 있고, 삼키기만 해서도 아니 되니까 토하기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바다를 삼킬 수 있고 바다를 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부처이며 능히 법의 보살이며 능히 어느 보살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느 중생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이면 그냥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자.’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놓는다면 몇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깨닫는 데에 지름길이며, 또 업식을 다 무효화시키는 데 지름길이며,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지름길이며, 나를 건강하게 하는 데도 지름길이며, 모든 것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하십시오. 내가 열 마디 백 마디 해 봤자 여러분이 생각 한 번 잘하는 것만 못합니다.

올라오는 감정 주체할 수 없어요

질문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꾹 참고 다니긴 하는데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선원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가 봅니다.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정신 번쩍 뜨이게 한마디 일러 주십시오.

답변 하여튼 사람마다요,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극치적으로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살지 마세요, 모두. 좀 너그럽게 하시구요. 인생이 한 철이에요, 한 철. 우리가 인생 한 철을 그냥 아주 급급하게 살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또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것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급급하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 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지든 제쳐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몽땅 그냥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 그냥.

그저 라면 한 그릇 먹으나 밥 한 그릇을 먹으나 하루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그래요. 밥을 한 그릇 떠다 주나 눌은밥을 반 그릇 갖다 주나 나 먹기는 똑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별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해 먹자, 더 좀 맛있는 거 해 먹자 이러는 마음이 파란을 일으켜요.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또 가면 가는 것 잡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고, 생긴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만물만생이 다 물속에서 살아도 다 그저 집이 돼 주면서 끝없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나를 보고 살아라. 나같이만 살면 뭐가 걱정이냐.’ 하죠. 산은 산대로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요, 묵묵히. 그런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한 철 날 놈의 거. 한 철 동안 공부하시는 게 세세생생으로 돌아가고, 세세생생에 돌아가는 그 자리의 권한으로 가신 위의 조상들도 다 건질 수가 있고 아래의 자식들도 다 건질 수가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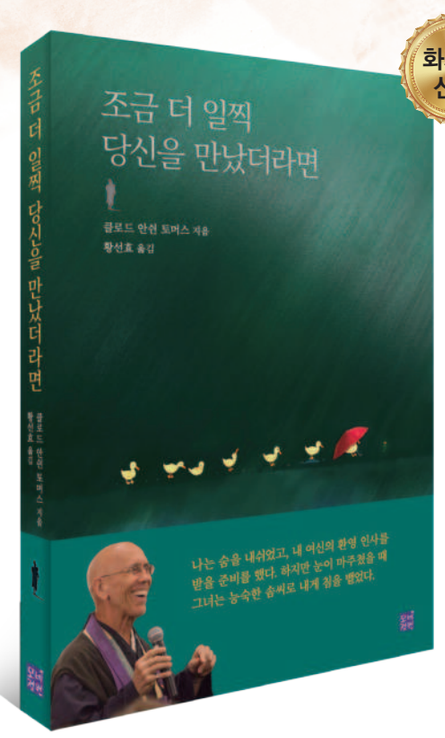
수계 법명을 받았는데…

질문 요번에 수계식에서 오계와 법명을 받았는데요, 그 법명을 보면 저희는 그냥 한문 뜻으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요.

답변 오계를 받았으면 실천을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그 오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공심으로써 무주상 보시를 한다. 또 생명을 나와 같이 생각한다.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덧붙이기로 말하자면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더도 덜도 하지 말고 나와 같이만 생각하라.’ 이런 것을 실천하는 데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름을 뭐, 그 어떻게 받았든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문제,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진실이죠.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 이름을 안 받았더라도, 오계를 안 받고 그랬더라도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걸 안 받았어도 받은 거 이상 가게 되죠. 그러나 받는 게 더 낫죠. 여러 눈 아닌 눈, 손 아닌 손, 귀 아닌 귀, 몸 아닌 몸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향을 피워 드리니까요.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현불논단



법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前 이사장

새해, 다시 수행이다

밝은 거울은 탐착함이 없으니
일체 만상의 차별상을 두루 비추어도
시비하는 자가 없느니
비록 더럽고 깨끗함을 나타내지만
증오하는 이 없네.

모든 생명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 증오하거나 시비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토사회일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평화와 행복을 원하지 않는 자 없으리라.

그러나 투쟁뇌고(鬪爭惱苦)의 세상을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도 개개인이 먼저 탈출하려는 탐착심에 이끌려 상부상조하여 함께 벗어나 함께 행복하자는 공동체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서로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려는 시비와 증오의 마음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2023년 신묘년 붉은 태양은 어느 해나 변함없이 쾌청한 동녘 하늘에 솟아오르며 일체 생명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발산하였다.

저 차별없는 태양의 햇살 같은 지혜의 광명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점화되어 토끼 같은 착한 마음으로 시비와 증오가 없는 화해와 용서로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발원해 보았다.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초발심이 바로 바른 깨달음의 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지난 일 혹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는 뜻이다. 불자의 염원은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이다. 즉 '성불합시다'이다. 이는 또한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즉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상태 즉 고따마 싯달르타가 깨달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존경받게 된 경지는 어떤 것일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이 본래 갖추고 있다'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이다. 이 자리는 미세한 티끌도 묻지 않은 거울(古鏡)과 같이 맑고 깨끗한 것이다. 이 티끌은 곧 탐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三毒心)을 말하며 불자가 발심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이 은산철벽 같은 미혹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삼독심을 완전이 제거해 본래 청정한 생명의 자성을 회복하면 태양 같이 밝은 지혜가 들어나며 어떤 경계 어떤 생명과도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지극 정성으로 하는 염불, 참선, 참회의 기도가 다 수행이다. 새해를 맞고 새 아침을 맞으며 나날이 새로운 각오로 정진해야 한다.

평상심이 도(道)라는 말이 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의 어려운 와도 불퇴전의 굳은 신심으로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순간순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를 극복하며 성불하는 시기까지 정진해야 한다.

수행은 어두운 마음을 닦아 밝게 하는 실천행동이다. 역대 부처님도 역대조사 스님들도 재가의 모든 신도들도 그렇게 수행하여 오늘 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수되어 문수보살의 지혜로 보현보살의 실천수행으로 우리도 부처님의 깨달을 향하여 정진하고 있다.

무엇을 걱정하랴
내 마음 나날이 밝은 태양처럼
밝고 아름다운 진여자성을 갖고 있거늘

나날이 기쁨을 함께하는 불자들이여!
우리들의 발심과 원력을 반드시 성취하여
불국정토 실현하세.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이 불자의 염원
이는 正覺 성취하는 마음 일으킨 원력
수행, 어둔 마음 닦아 밝게 하는 실천

역대 부처님, 조사 스님, 재가신도들도
수행해 불교 가르침이 계승 전수되어져

정성으로 하는 염불, 참선이 모두 수행
새 아침 맞으며 새로운 각오로 정진해야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세상을 바르게 봅시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견해로 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에서 학습한 것이 내 견해의 일부를 차지할 것입니다.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육안입니다. 뱀을 뱀으로 보아야 하는데, 뱀을 새끼줄로 보는 견해를 가졌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는 육안과 심안(心眼)이 있습니다. 육안은 육체적인 눈이요, 심안은 마음의 눈입니다. 심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눈입니다. 심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자들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밖으로 드러난 모양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꿰뚫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개념으로 세계를 보며, 이것에 반대한 저것이 있다는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기 관점에 맞도록 수정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안에 있는 사물의 모양과 눈에 보이는 모양이 일치하면 흐뭇해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나의 관념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 투영된 그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지, 결코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스스로 각색한 모양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뇌가 먼저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체를 매우 서툴게 각색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곧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사람이란 내 구미에 맞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내 비위를 잘 맞추어 주는 사람이지요. 나쁜 사람이란 내 비위에 거슬리거나, 내 뜻에 잘 따라 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해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견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른 길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요인이 됩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說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거는 기대

전 세계 여성수행자들의 대화합 장이 될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전국비구니회관 등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리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40여 개국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04년 열렸던 8차 대회에 이어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세계의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해야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일 동안 총 6개 주제의 논문발표와 62개 워크숍, 포스터 발표, 세계의 명상, 저녁예불, 저녁법문, 문화공연, 전시 등이 이어진다. 불교를 넘어 한국의 아름다운을 소개할 시간도 준비돼 눈길을 끈다. 연등행렬과 사찰음식, 서울 야경 투어 등으로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찬스다.

전국비구니회는 샤카디타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년전부터 합심,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대회장인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각종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현재 그 결과가 이어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통해 세계 여성불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국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공유,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세계평화 구축과 인류 이익을 위한 자비로운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재능이 아름답게 꽃피어 비구니 승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국대 제20대 총장 선출에 부쳐

동국대 제20대 총장에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이 선출됐다. 이로써 오는 3월 1일 이후 4년동안 동국대를 이끌 수장이 결정된 것이다.

윤재웅 차기 총장은 동국대 국문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 · 박사학위를 받은 '동국맨'이다. 윤 차기 총장은 미당 서정주 시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마지막 애제자로 미당의 전문연구자이기도 하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견 발표 당시에도 건학이념 교육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을 비전으로 국내 5위, 글로벌 100위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윤 차기 총장의 목표다.

윤 차기 총장은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 일상화 △명상교육 표준화 및 융합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대장경 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국대는 2021년 4월 29일 출범한 건학위원회를 통해 많은 변화들이 이뤄졌다. 전액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과 지역사찰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장학제도인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이 신설돼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한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새로 선출된 윤 차기 총장의 어깨는 무겁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위기 상황이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동국대를 법신불(法身佛)로 여기고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 차기 총장의 각오처럼 동국중흥을 통한 불교중흥을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7대 불가사의

ANGKOR

앙코르와트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앙코르와트 직항 · 5성급 호텔 제공

1,390,000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 & 특수지역전문 ajetour.co.kr